

석사학위논문

중국 연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요구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옥희

2004년 8월

# 중국 연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요구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4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박 옥 희

박옥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 초록>

## 중국 연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 요구

박 옥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의 실태, 및 상담 요구 영역을 알아보고 그들의 고민해결을 위하여 상담방향과 과제를 제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은 무엇인가?

둘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상담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담영역은 무엇인가?

넷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상담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소재하는 4개 현시의 소학교, 중학교, 고중에서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청소년(447명), 학부모(299명), 교사(366명)을 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기존의 조사 자료들에 기초하고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연구에 쓰인 설문지(한국 청소년 상담원,1993)와 제주도 청

---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소년들의 의식조사 설문지(허철수, 고기홍 외 1997)를 참고하고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의 상담실태와 과제과약을 위한 설문 조사내용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 제작하였고 기존 조사에 비해 조사영역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SPSS/PS+를 이용한 통계처리분석을 통해 빈도별 분석을 하였다. 청소년들의 상담실태와 심리적 고민에 대해서는 백분율(%)을 통하여 알아보고 상담요구 영역에 대해서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세 집단간의 평균(%)을 통해 우선 순위를 알아보았다.

본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연변지역 청소년들은 심각한 심리적 고민을 겪고 있다. 청소년의 고민 문제의 정도는 다수가 고민이 아주 많거나 다소 많다. 학교 급별이 높을수록 고민이 더 많다.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고민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았고, 학부모들도 청소년 자신들이 느끼는 것보다 자녀들의 고민문제가 훨씬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학습문제, 친구문제, 성격문제, 자아문제, 성 문제, 심리문제, 신체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기타 여러 면에서 유사한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학습문제에서는 집중력 부족, 성적저하, 시험불안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나타났고, 심리문제에서는 우울증이나 신경증을 호소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났다. 가정문제에서는 부모의 과잉기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큰 고민거리로 나타났으며, 기타문제에서 교사와의 갈등, 교사 폭력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셋째, 원하는 상담영역으로는 학습문제, 성격문제, 심리문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은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적당한 상대가 없어서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연변청소년 상담의 방향과 과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서적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여서 고민과 갈등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과중하게 해를 끼치는 스트레스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가정, 학교방면의 심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실질적인 심리건강교육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고민이나 불만을 토로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고민상담에서 친구가 가장 적절한 대상이기에 또래 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1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부적절한 과잉기대로 인하여 고민,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학부모교육이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을 사회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을 해칠 수 있는 활동장소가 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의 학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바르고 건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연령단계에 따르는 정확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에 전문상담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학교, 가정이 상호 배합되어 심리건강교육, 성교육, 심리훈련, 심리보도, 심리자문, 심리진단 등 종합성 교육활동이 잘 진행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심신에 알 맞는 다양한 교양과 활동을 벌임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고민을 제때에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연구의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특징 .....	5
2. 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과 상담적 접근 .....	7
3. 연변지역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실태 .....	10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3
1. 연구 대상 .....	13
2. 조사의 실시 .....	14
3. 조사도구 .....	14
4. 자료 처리 .....	17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8
V. 요약 및 결론 .....	51
1. 요약 .....	51
2. 결론 .....	58
VI. 연변 청소년상담의 방향과 과제 .....	61
참 고 문 헌 .....	66
Abstract .....	68
부록 .....	70

## 표 목 차

<표Ⅲ- 1>조사대상자 지역별, 대상별 분포 .....	13
<표Ⅲ- 2>조사대상자 학교 급별 분포 .....	14
<표Ⅲ- 3>청소년용 설문지 구성내용 .....	15
<표Ⅲ- 4>학부모용 설문지 구성내용 .....	16
<표Ⅲ- 5>교사용 설문지 구성내용 .....	16
<표Ⅳ- 1>학교 급별로 본 청소년의 거주형태 및 원인 .....	18
<표Ⅳ- 2>학교 급별, 성별로 본 방과후 학생이 함께 지내는 대상 .....	19
<표Ⅳ- 3>학교 급별, 성별로 본 학생의 방과후 주로 하는 일 .....	20
<표Ⅳ- 4>학교 급별, 성별로 본 학생의 마음상태 .....	21
<표Ⅳ- 5>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가정생활 행복도 .....	22
<표Ⅳ- 6>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23
<표Ⅳ- 7>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고민해소 친구유무 .....	24
<표Ⅳ- 8>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친구관계 .....	25
<표Ⅳ- 9>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친구간 갈등해소 .....	26
<표Ⅳ-10>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고민 처리 .....	27
<표Ⅳ-11>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도움요청 대상 .....	28
<표Ⅳ-12>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도움 요청 방법 .....	29
<표Ⅳ-13>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원하는 도움 .....	30
<표Ⅳ-14>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도움요청시 성과 .....	31
<표Ⅳ-15>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고민문제의 정도 .....	32
<표Ⅳ-16>학교 급별로 본 학생의 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1) .....	33
<표Ⅳ-16>학교 급별로 본 학생의 고민하는 문제의 우선 순위 (2) .....	35
<표Ⅳ-17>학부모가 본 자녀의 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1) .....	38
<표Ⅳ-17>학부모가 본 자녀의 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2) .....	39
<표Ⅳ-18>교사들이 본 학생의 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1) .....	40

<표IV-18>교사들이 본 학생의 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2) .....	42
<표IV-19>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기관, 상담실 이용 유무 .....	43
<표IV-20>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기관, 상담실 이용의도 .....	44
<표IV-21>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요구영역 (1) .....	46
<표IV-21>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 요구 영역 (2) .....	47
<표IV-21>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 요구 영역 (3) .....	48
<표IV-22>학교 급별, 대상별 가장 원하는 상담 영역 비교 .....	49

## 부 록 목 차

<부록 1> 설문지 (청소년 용) .....	71
<부록 2> 설문지 (학부모 용) .....	76
<부록 3> 설문지 (교사 용) .....	8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부딪치는 크고 작은 현상들에 대하여 반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행동으로서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고민, 일상생활, 가치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맞이하였다. 현대 산업사회가 만들어 내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문화적 충격에 노출된다. 생존과 발전에 압력이 가해지고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시대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현저히 제고시킴과 아울러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심리적 갈등에 직면케 하였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 신속한 외래 문화의 유입에 따른 심리적 혼란, 기성세대와의 갈등, 치열한 입시경쟁 등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민을 겪게 하고 있다( 마중범, 2002).

중국 남경시의 한 소학교에서 실시한 심리건강상황조사에서 1200여명 학생 중 자신이 유쾌하지 못하다거나 아주 유쾌하지 못하다고 반응한 학생이 33.4%를 접하였다. 또한 57.7%의 학생이 고민거리가 있다고 반응하였는데 그중 33%가 학습과 관련된 것이었고, 14%가 친구관계였고, 40%는 부모와의 대화였고, 15%가 자아의식 방면의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이 대부분 맹아상태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제때에 해소시키지 않고 오래 동안 갖고 있으면 꼭 학생들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서 기질적인 요인 이외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환경의 일차적인 영향으로서 가족의 환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김주연, 1996). 청소년은 현실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

지만,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에 반해 가지게 되는 정신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은 이러한 청소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준호·김순형, 1995).

중국 연변지역에는 부모 출국가정과 이혼가족의 급증으로 자녀교양 기능을 상실한 가족이 많이 속출하였다. 2003년 5월에 결혼가족자녀의 교양문제연구를 위하여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연변 훈춘시 한 소학교의 1135명중 한쪽 부모거나 양쪽 부모가 다 없는 학생수가 366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32.2%에 달했고 부모가 이혼한 학생수가 227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20%에 달했다.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있는 자녀들은 대부분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

중국의 현시대 새로운 가족 형태는 계획생육의 산물인 외동이의 증가로 인한 부부와 한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외동자녀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감격할 줄 모르고 물건에 대해 아껴 쓸 줄 모르며, 일에 대하여 힘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억제할 줄 모르는 것이다. 강동묵(1999)은 외동자녀 문제는 중국학교교육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그들의 교양에 관한 연구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 노동인력 유출로 인한 편부모 가족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문제와 대처방안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식(1985)은 청소년 고민문제를 진로문제, 학교문제, 성격문제, 친구문제, 건강문제, 용모문제 등 면에서 고찰하였고, 한국 청소년 연구원(1991)은 공부문제, 진학·진로문제, 성격문제, 이성문제, 친구문제 면에서 고찰하였다. 황정규(1990)는 “고민거리”를 조사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조사하였고, 그 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양을 비교하여 순위를 매겨놓고 그 순위가 곧 고민거리의 강도와 유사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문용린(1993)은 청소년들이 나타내 보이는 비행과 탈선,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을 하나의 적응 노력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 적응이 미숙해서 생긴 부작용으로 간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의 존재 자체가 위기 지향적 스트레스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성장발달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인 반면에 또한 현대 도시 산업 사회 속의 '삶의 무대'는 현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자신들의 정서와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과 학교와 가정에서 받는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계선자 외, 2001). 공부와 학업성적이 가장 우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고 특히 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진로문제는 전 학년에 걸쳐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요인으로 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그들의 도덕성이나 품성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장애로부터 오는 문제로서 불량한 심리의 외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에 대하여 주목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비행과 탈선보다는 비행과 탈선으로 이끄는 고민과 불안에 더 주목하여 그런 것들을 제때에 해소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구본용 외, 1993).

연변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여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고민이 있어도 해소할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해오던 사상품성교양은 현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을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나도 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지역에는 아직도 상담시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변지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민과 그에 대한 대처방식과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담영역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조력할 수 있는 상담의 방향을 정립하고 필요한 상담 과제들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절실한 도움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의 요구영역을 밝혀 청소년 상담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은 무엇인가?

둘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상담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이 원하는 구체적 상담영역은 무엇인가?

넷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상담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부류의 청소년들이 상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설문조사에서 심리적 문제, 성 문제에서 진실하게 고민여부를 밝히기를 꺼려하여 응답을 얻어내는데 일정한 한계점이 있었다.

둘째,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마치 도덕성과 연관된 문제처럼 생각하여 진실하게 응함이 부족하여 연구에 어려움을 주었다.

##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특징,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과 상담적 접근, 연변지역 청소년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특징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로서 일생 중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징들을 지니게 된다(구본용 외, 1993).

청소년기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성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며 성적 발달에의 수치감과 불안감 및 신체적 각 부분의 불균형적 발달로 인한 불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심리적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적응 현상을 초래한다.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는 민감하고도 성적 색채가 강한 정서의 변화로 극심한 감정변화와 외계의 자극과 대상에 대한 과민 반응을 나타내며 공연히 신경질을 부린 다든지 무엇에 쫓기는 듯한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 중, 후기로 더 발달되면서 격심한 정서의 표출보다는 자아의식의 고양과 아울러 내부로 침체되면서, 고독을 즐기고 낭만적·감상적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점차 자기도피에 빠지는 일이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주관을 객관으로 평가하는 등 정서적으로 성숙되어간다(고기홍 외, 1997).

청소년기의 정서(emotion)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민감성이 가중된다(Heighten sensitivity). 청소년기 학생들은 삶(life)

을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경험하며 때때로 과장하려는 특성이 있다. 둘째, 기분이 수시로 변한다(Mood swings). 기쁨과 슬픔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거의 동시에 표현된다. 정서의 변화는 빠르고 강력하다. Schave와 Shave (1989)는 청소년기 초기에는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아구조가 약화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주된 정서는 수치감이라고 설명한다.

청소년기의 사고(Thought)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기에 몰입되어 있다(Preoccupation with Self). 이러한 몰입은 자기 도취적(narcissistic)이지만 여기에는 자기의심(self-doubt)과 자기확신(self confidence)에 대한 위기 등이 결합되어 있다. 둘째, 공상에 몰입되어 있다(Preoccupation with fantasy). 풍부한 공상의 생활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강력한 욕구들과 감정 때문이다. 셋째, 자기-표현에 몰입되어 있다. 이것은 부모의 감독과 승낙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내적인 싸움을 반영한다. 넷째, 철학적인 추상적인 생각, 이론들, 그리고 이상들에 몰입되어 있다(Preoccupation with philosophical abstraction, theories, and ideals). 이때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egocentrism)은 정상적인 인지발달이며 이러한 과정 안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논리적인 사고의 힘에 몰입되어 있어서 자신들만의 이상적인 사고(idealistic thought)와 현실세계(real world)간의 차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없다(Wads-worth,1996). 다섯째, 성욕에 몰입되어 있다(Preoccupation with sexuality). 청소년기 학생들은 성적인 것에 필사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성애적인 관계를 강력히 요구하며 과승이상화(overridealized)된다. 여섯째, 청소년기에는 쾌락주의(Hedonism)와 금욕주의(Asceticism) 특성을 보인다. 일곱째, 인습주의 (conformism)적이다. 독립을 향한 투쟁의 일부분으로 청소년기는 동료 집단을 선택하기 위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자기만의 정체감 패턴을 변화시킨다.

청소년기 행동(behavior)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과승 활동 또는 행동화 경향성(Propensity to act-out)이다. 충동적인 행동(impulse behavior)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원인일 수 있다. 이들 시기

에 반항심(rebelliousness)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행과 다른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 둘째, 행동을 억제한다(inhibition of behavior). 청소년기 학생들은 억제 에피소드(episodes of inhibition)를 보유하고 있고 어느 때는 사회적으로 철회되어 있다(나승규, 2002, 재인용).

청소년 과도기의 모순되는 심리특징은 아래의 몇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는 자아의식의 증강 및 독립성과 의퇴성의 모순이고, 둘째는 성 의식의 성숙과 도덕 법제관념의 모순이고, 셋째는 활동 능력과 인식발전수준 불균형의 모순이다. 넷째는 부단히 증강하는 물질적 수요와 경제지위 미 독립의 모순이고 다섯째는 미래에 대한 지향과 현실상황의 모순이다.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사회·심리적 특징은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 이유’의 현상이다. 청소년들은 인식능력의 발달로 자신의 정신적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간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또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 2. 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과 상담적 접근

청년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청년의 발달수준, 성 그리고 사회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부적응은 일시적이고, 또 어떤 부적응은 상당히 오래 간다(정옥분, 1998).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변화의 단계이고, 심리적·사회적으로 갈등이 극심하며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정신적 문제를 발생하는 위험의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Conger & Petersen, 1984).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인지적으로 형식적 조작을 가하게 됨으로써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아구조의 약화이다(Schave D., & Schave, B. 1989).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가치관의 형성, 부모로부터의 독



립, 친구와의 관계, 진로선택 및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화, 정보화,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발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급속한 변화와 발달 과업들을 수행해내는 동안 청소년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경험하는 과도기적 발달 특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많은 변화와 갈등 및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 현상과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지구촌이 하나로 되고 있는 복잡다단한 사회현실에서 사회적 규범과 가치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탐색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심리적 균형을 깨뜨리고 감정과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고뇌하고 방황하며 갈등을 겪는 것은 발달심리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며, 건강한 성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통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들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상담은 전문 상담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문적 활동(Pietrofesa, Hoffman, & Splete, 1984)으로서, 청소년상담의 의미와 특성은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발달과정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달의 특수성, 문제의 특수성, 환경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홍강의, 1992).

황응연(1993)은 청소년상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전제로서 청소년상담은 인간발달의 특정한 단계에 속하는 청소년을 상담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상담의 대상은 그들이 주로 소속하고 있는 기관 또는 위치에 따라 정해야 하고 청소년 상담의 방법과 절차는 그들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나 내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Booth(1998)는 청소년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강력한 정서적 경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응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스포츠를 하거나 친구 혹은 신뢰할만한 성인들로부터 위로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서 청소년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점에서 황응연(1993)과 윤희준(1983)은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으로 상담과 생활지도를 들었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제는 비행(非行)이다.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해서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입시부담, 집단따돌림 등 학교의 요인을 제기 하면서 학교가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하였다. 상담이 필요한 다른 청소년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이다. 과중한 스트레스, 부적합한 환경, 충격적인 사건 등이 원인이 되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발달 과정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의 일차적인 대상은 청소년 자신이지만 청소년 관련인 및 관련기관 역시 청소년상담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이 지니는 정신적 불건강의 치료 및 문제의 해결, 정신적 불 건강의 예방,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목적으로 개인상담은 물론 집단상담을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교육과 훈련,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상담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박재황,1997).

청소년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와 줄 수 있을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올바르게 돕는 일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탐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에 앞서 상대방의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일이다(박태수, 2000).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적 접근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제행동이나 심리적 고민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보다 힘있고 건전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허철수 ,2002).

청소년 상담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닌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과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며, 자기이해 와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게 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조력할 수 있다.

### 3. 연변지역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실태

국제 심리위생 학술대회에서 심리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살펴보면 첫째는 신체, 지력, 정서의 조화로움이고 둘째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적절한 인간관계이며, 셋째는 행복감이고, 넷째는 사업과 직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심리건강교육과 심리자문사업은 많은 발전한 나라에 비해 뒤떨어진 상태이다. 전명이(1994)는 중국은 심리자문과 심리치료 방면에서 시작이 비교적 늦으며 발달한 나라에 비해 ‘미국에 비하면 반세기나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신 중국이 창립된 이래의 심리자문과 심리치료에서의 발전상황을 크게 4개 단계로 종합하였다. 첫째 단계는 시작단계로서 (1949년-1965년)사이이고, 둘째 단계는 공백단계(1966년-1977년)인 문화대혁명기간으로서 심리학은 허다한 인문학과와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준비단계는( 1978년-1986년)사이이다.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는 심리치료사업의 새로운 시작에 양호한 조건을 창조하여 주었다. 제 4단계는 초보적인 발전단계 (1987년 -1994까지)이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되는 발전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宋興川(1998)은 중국의 심리건강교육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원인으로 하여 학교심리보도 공작이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처하여 있다가 1985년에 와서야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중소학교 심리자문사업은 근근히 몇몇 학교에서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계통적이고 전면적인 청소년에 대한 심리보도와 자문사업은 전문인원의 부족으로 중학교에서 대규모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심리문제는 날이 감에 따라 돌출하여 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교육에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때문에 재직교사들에 대하여 대면적으로 심리보도 지식에 대한 교육은 심리건강교육과 심리자문 사업을 추진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될 수 있다.

1994년 상해시에서의 시작으로부터 지금은 전반 사범교육에 심리위생과 심리 보도 지식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마중범 (2002)은 현재 중국에는 심리자문이 의료기관과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 고등학교에서는 사상품성교양의 한 부분으로 심리건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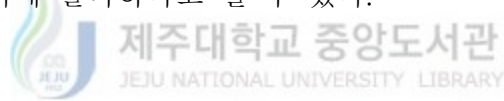
중국국가 교육부에서 북경, 천진, 등 6개성의 대학생들에 대한 한 차례의 설문조사의 한 조목인 ‘당신이 생각하건대 당전에 무슨 교육을 제일 강화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제1순위로 간 것이 심리건강에 관한 교육이었다. 이것은 대학생을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심리건강교육, 및 심리자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실히 수요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1999년 8월 13일 국가 교육부에서 “중소학교 심리건강교육을 강화하는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그 공문에서는 심리건강교육의 중요성, 심리건강교육의 기본원칙, 임무와 실시 도경, 심리자문 교사의 조건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양성을 받은 상담교사가 있는 조건에서만 상담실 개설을 허락하였다. 국가교육부의 공문 발표 후 심리건강교육에 대한 중시는 높아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문제와 상담요구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변지역도 전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의 급격한 변화, 또는 다양화, 그리고 특히 가족교육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갈등 등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들의 내면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정서적 문제는 물론 비행을 야기시키고 있다. 연변지역청소년들의 심리상, 행위상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심리상의 문제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혐오이다. 행위상 존재하는 문제로는 바른 예절이 부족하고 노동태도가 결핍하고 자립능력이 차한 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학교중퇴생이 늘어나고 조기 연애가 상승선을 긋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성적에 따르는 학교평가나 교사평가는 아직도 시험점수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성적이 차한 학생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꺾어 학교생활을 혐오하도록 하여 많은 심리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량의 학교 중퇴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나 교육 일선에서 이미 명석한 인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상의 문제는 주로 학급담임이나 보도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담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문성 향상이 어렵고 청소년들의 각종 심리고민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마종범, 2002).

현재 연변지역의 청소년 상담상황을 보면 부분현시에 부분적으로 의학치료와 심리치료가 결부된 상담시설이 있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부분 현시의 부분 학교들에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여 주고 있다. 연변대학 MBTI연구소, 연변봉황인격개발원 등이 사회에 문을 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훈춘시의 경우, 시 교원연수학교와 개별적인 중소학교들에서 상담실은 설치하였으나 합당한 전문인원의 부족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심리건강교육과 심리자문의 필요성이나 절박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행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소재 하는 4개 현시의 소학교, 중학교, 고중의 청소년, 학부모, 교사 도합 1112명이다.

연구대상 선정에서 소학교, 중학교, 고중의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했으나, 청소년 조사대상은 소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고급학년인 5학년과 6학년으로 제한하였다.

지역별로는 연변지역 8개 현시 중 50%에 해당하는 4개 현시를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지역별, 대상별, 분포를 보면 <표Ⅲ-1>, <표Ⅲ-2>와 같다.

<표Ⅲ-1> 조사대상자 지역별, 대상별 분포

명(%)

구 분		인 원	계
지역별		302 (27.1)	1112(100.0)
	도문시훈춘시	209 (18.8)	
	연길시	368 (33.1)	
	화룡현	233 (21.0)	
대상별	청소년	(남)188 (여)259 (계)447 (40.2)	1112(100.0)
	학부모	299 (26.9)	
	교사	366 (32.9)	
계			1112(100.0)

〈표Ⅲ-2〉 조사대상자 학교 급별 분포

명(%)

구 분	소 학 교	중 학 교	고 중	합 계
청소년	155 (13.9)	136 (12.2)	156 (14.0)	447 (40.2)
학부모	130 (11.8)	82 (7.4)	87 (7.8)	299 (26.9)
교사	136 (12.2)	136 (12.2)	94 (8.5)	366 (32.9)
계	421 (37.9)	354 (31.8)	337 (30.3)	1112 (100)

## 2. 조사의 실시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3년 11월 8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도합 1580부가 배포되었다. 조사는 재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협조와 본 연구자가 합작하여 실시되었다. 청소년들의 설문지는 즉석에서 회수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것은 배부 2일내에 전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86.3%이다. 표집 대상별 회수율은 청소년 92.1%, 학부모 72.8%, 교사 98.4%이다.

##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김계현 외(2000)의 “청소년들은 과중한 스트레스, 부적합한 환경, 충격적인 사건 등이 원인이 되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조사내용과 범위를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사 자료인 한국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3)의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연구에 쓰인 설문지, 한국 제주도 청소년 의식조사에 쓰인 설문지 (허철수, 고기홍 외, 1997)에 기초하고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의 상담실태와 과제과약을 위한 설문조사지 (제주대학 허철수, 중국 연변대학 이봉월, 중국 훈춘 청소년

년 상담실 박옥희가 공동조사. 2002년 6월)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한 후 연구 목적에 맞게 재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구성으로는 청소년은 본인의 소속 학교, 학년, 성별, 교사는 가르치는 학교, 가르치는 학년, 학부모는 학생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에 관계된 것 외에 청소년의 거주형태, 청소년의 여가생활, 청소년의 학교생활, 청소년의 가정생활, 청소년의 친구관계, 청소년의 건강문제, 청소년의 고민내용,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대처방식, 각 대상에 따르는 상담실 이용여부, 각 대상에 따르는 원하는 상담영역 등이다. 본 연구 설문지는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지로서 조사 영역은 대체 상 일치하나 문항 수는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용 24문항, 학부모용 18문항, 교사용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3>, <표Ⅲ-4>, <표Ⅲ-5>와 같다.

〈표Ⅲ-3〉 청소년용 설문지 구성내용



조 사 영 역	문항번호	조 사 영 역	문 항 번 호
조사대상자 신분, 소속	1~3	친구관계	11~13
거주형태	4~5	고민 처리 방법	14~16
여가생활	6~7	고민처리 의논대상	17~18
마음상태	8	고 민 문 제	19~20
가정생활	19	상담실이용여부	21~22
학교생활	10	상담 요구 영역	23~24

<표Ⅲ-3>에서 보듯이 청소년용 설문지는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거주형태, 여가생활, 마음상태 및 가정,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친구관계, 고민 처리방법, 고민해소 대상을 알아보고 또 고민문제와 상담실 이용여부, 상담요 구영역을 알아보는 것을 구성내용으로 하였다.

〈표Ⅲ-4〉 학부모용 설문지 구성내용

조 사 영 역	문 항 번 호	조 사 영 역	문 항 번 호
조사대상자 신분, 소속	1~4	자녀의 고민문제	14~15
학생의 가정생활	5	상담실이용여부	16~17
학생의 친구관계	6		
학생의 고민처리	9~11	상담요구영역	18
학생의 상담목적	12		
학생의 상담효과	13		

학부모 용 설문지는 학부모의 학생과의 관계를 인적사항으로 주요하게 학부모 시각에서 본 학생의 가정생활, 친구관계, 고민처리방법, 대상, 상담목적, 효과 및 학생의 고민문제, 상담요구 영역 등을 알아보는 것을 구성내용으로 하였다.

〈표Ⅲ-5〉 교사용 설문지 구성내용

조 사 영 역	문항번호	조 사 영 역	문항번호
선생님의 소속	1~2	학생들의 고민 문제의 정도	8
학생들의 학교생활	3		
학생들의 고민처리	4	학생들의 고민문제	9
학생들의 고민처리 대상	5	선생님의 상담실 이용여부	10~11
학생들의 고민처리 방법	6~7	선생님이 원하는 상담영역	12

교사용 설문지는 교사의 소속을 인적사항으로 하여 교사의 시각에서 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고민처리 대상, 방법과 고민문제의 정도, 구체적인 고민문제를 알아보는 것 및 상담실 이용여부, 원하는 상담영역을 알아보는 것을 구성내용으로 하였다.

#### 4. 자료 처리

본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SPSS/PC+를 이용한 통계처리분석을 통해 빈도별 분석을 하였다. 본 설문지는 문항 중 마음상태, 친구관계, 고민해소 방법 등 문항에는 해당되는 문항에 하나의 답만을 선택하도록 하여 그 빈도와 (%)를 산출하였다.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문제에 대한 문항에서는 여러 개의 문항을 선택할 수 하도록 하였다. 원하는 상담영역은 청소년, 학부모, 교사 세 집단의 평균(%)를 통하여 우선 순위를 알아보았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된 청소년들의 거주형태, 친구관계, 고민처리, 고민문제, 원하는 상담 영역 등을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집된 청소년들의 거주형태, 결손가족 자녀와 그 원인은 아래와 같다.

<표IV-1> 학교 급별로 본 청소년의 거주형태 및 원인

명(%)

구분	청소년 거주형태			계	원인	결손가족 자녀			계
	소학생	중학생	고중생			소학생	중학생	고중생	
양부모	70 (45.2)	65 (47.8)	70 (44.9)	205 (45.9)	이혼	13 (15.3)	10 (14.1)	15 (7.4)	38 (15.7)
아버지	18 (11.6)	20 (14.7)	24 (15.4)	62 (13.9)	외국	57 (67.1)	49 (69.0)	53 (61.7)	159 (65.7)
어머니	25 (16.1)	23 (17.0)	33 (21.2)	81 (18.1)	국내	8 (9.4)	4 (5.6)	8 (9.3)	20 (8.3)
기타	42 (27.1)	28 (20.5)	29 (8.5)	99 (22.1)	사망	7 (8.2)	8 (11.3)	10 (11.6)	25 (10.3)
계	155 (100.0)	136 (100.0)	156 (100.0)	447 (100.0)	계	85 (100.0)	71 (100.0)	86 (100.0)	242 (100.0)

<표IV-1>은 학교 급별로 본 청소년의 거주형태 및 결손가족의 원인에 대한 개괄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447명(청소년)중의 45.9%가 양부모와 함께 있으며 22.1%는 조부모나 친척, 자취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와만 생활하는 학생은 18.1%이고 아버지와만 생활하는 학생은 13.9%이다.

양부모와 함께 못 있는 원인으로는 242명 학생 중 외국에 돈벌이를 나간 부모가 65.7%, 부모 이혼이 15.7%, 사망이 10.3%이고, 국내 다른 곳으로 돈

벌러 간 경우가 8.3%이다.

이상에서 과반수가 되는 청소년들이 양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교육의 중요한 장인 가정교육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Ⅳ-2>는 학교 급별, 성별로 본 방과 후 함께 보내는 대상에 대한 응답이다. 전체 응답자 447명중 부모와 함께 있는 학생이 48.3%, 친구와 지내는 학생이 8.6%, 혼자 있는 학생은 11.9%이다. 소학생의 경우 부모(52.3%), 조부모(16.8%), 혼자(12.3%)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55.1%), 친구(17.0%), 조부모(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중생은 부모(38.5%), 친구(34.0%), 혼자(14.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소학생은 남, 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학생인 경우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남학생은 15.6%로 여학생 18.1%에 비해 낮았으나,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남학생은 14.1%로 여학생 9.7%에 비해 높았다. 고중생은 남학생 39.7%로 여학생 29.5%에 비해 친구와 함께 지내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2> 학교 급별, 성별로 본 방과후 학생이 함께 지내는 대상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부모	27 (48.2)	54 (54.5)	81 (52.3)	37 (57.8)	38 (52.8)	75 (55.1)	22 (32.3)	38 (43.2)	60 (38.5)	216 (48.3)
친구	2 (3.6)	5 (5.1)	7 (4.5)	10 (15.6)	13 (18.1)	23 (17.0)	27 (39.7)	26 (29.5)	53 (34.0)	83 (18.6)
혼자	7 (12.5)	12 (12.1)	19 (12.3)	5 (7.8)	6 (8.3)	11 (8.1)	11 (16.2)	12 (13.6)	23 (14.7)	53 (11.9)
조부모	11 (19.6)	15 (15.1)	26 (16.8)	9 (14.1)	7 (9.7)	16 (11.8)	5 (7.4)	4 (4.5)	9 (5.7)	51 (11.4)
기타	9 (16.1)	13 (13.2)	22 (14.2)	3 (4.7)	8 (11.1)	11 (8.1)	3 (4.4)	8 (9.2)	11 (7.1)	44 (9.8)
계	56 (100.0)	99 (100.0)	155 (100.0)	64 (100.0)	72 (100.0)	136 (100.0)	68 (100.0)	88 (100.0)	156 (100.0)	447 (100.0)

〈표Ⅳ-3〉 학교 급별, 성별로 본 학생의 방과 후 주로 하는 일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학원	32 (57.1)	70 (70.7)	102 (65.8)	29 (45.3)	45 (62.5)	74 (54.4)	33 (48.5)	57 (64.8)	90 (57.7)	266 (59.5)
친구집	3 (5.4)	9 (9.1)	12 (7.8)	15 (23.4)	5 (6.9)	20 (14.7)	7 (10.4)	10 (11.4)	17 (10.8)	49 (10.9)
전자 유희	3 (5.4)	0	3 (1.9)	5 (7.8)	7 (9.7)	12 (8.8)	10 (14.7)	4 (4.5)	14 (9.0)	29 (6.5)
TV 시청	8 (14.3)	12 (12.1)	20 (12.9)	8 (12.5)	6 (8.4)	14 (10.3)	9 (13.2)	5 (5.7)	14 (9.0)	48 (10.7)
운동	0	2 (2.0)	2 (1.3)	4 (6.3)	2 (2.8)	6 (8.4)	6 (8.8)	5 (5.7)	11 (7.1)	19 (4.3)
집일	10 (17.8)	6 (6.1)	16 (10.3)	3 (4.7)	7 (9.7)	10 (7.4)	3 (4.4)	7 (7.9)	10 (6.4)	36 (8.1)
계	56 (100.0)	99 (100.0)	155 (100.0)	64 (100.0)	72 (100.0)	136 (100.0)	68 (100.0)	88 (100.0)	156 (100.0)	447 (100.0)

〈표Ⅳ-3〉은 학교 급별, 성별로 본 방과 후 주로 하는 일에 대한 학생의 응답이다. 전체 응답자 중 59.5%가 학원이나 집에서 공부한다고 했으며, 10.9%가 거리에서나 친구 집에서 논다고 했고, 10.7%가 TV, 비디오를 시청한다고 했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생은 학원이나 집이 65.8%, TV,비디오 시청이 12.9%, 집안일 돕기가 10.3%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학원이나 집이 48.5%, 거리에서나 친구 집에서 논다가 14.7%, TV, 비디오 시청이 10.3%로 나타났고, 고중생은 학원이나 집에서 공부한다고 57.5%, 거리에서나 친구 집에서 논다가 10.8%, 컴퓨터를 논다가 9.0%로 나타났다.

이상 응답으로부터 방과 후 학원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이 59.5%로 상당수고 운동을 한다거나 집안일을 돕는다는 학생이 소수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다방면의 교양이 결여됨을 시사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소학생, 중학생, 고중생이 모두 학원에 간다는 여학생이 70.7%, 62.5%, 64.8%로 남학생 57.1%, 45.3%, 48.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소학생은 집안일을 돕는다는 남학생이 17.8%로 여학생 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Ⅳ-4〉 학교 급별, 성별로 본 학생의 마음상태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항상 쾌활	15 (26.8)	26 (26.2)	41 (26.4)	20 (31.2)	8 (11.2)	28 (20.5)	10 (14.7)	9 (12.2)	19 (12.2)	88 (19.7)
대체로 좋다	14 (25.0)	30 (30.3)	44 (28.4)	10 (15.6)	21 (29.2)	31 (22.8)	24 (35.3)	27 (30.7)	51 (32.7)	126 (28.2)
그저 그렇다	19 (33.9)	30 (30.3)	49 (31.6)	23 (35.9)	24 (33.3)	47 (34.6)	24 (35.3)	42 (47.7)	66 (42.3)	162 (36.2)
답답하다	5(8.9)	10 (10.1)	15 (9.7)	8 (12.5)	14 (19.4)	22 (16.2)	9 (13.2)	8 (9.1)	17 (10.9)	54 (12.1)
죽고 싶다	3 (5.4)	3 (3.1)	6 (3.9)	3 (4.8)	5 (6.9)	8 (5.9)	1 (1.5)	2 (2.3)	3 (1.9)	17 (3.8)
계	56 (100.0)	99 (100.0)	155 (100.0)	64 (100.0)	72 (100.0)	136 (100.0)	68 (100.0)	88 (100.0)	156 (100.0)	447 (100.0)

〈표Ⅳ-4〉는 학교 급별, 성별로 본 학생의 마음상태에 대한 응답이다. 요즘 학생의 마음상태에 대하여 응답자 447중 36.2%가 그저 그렇다고 했고, 28.2%는 아주 좋다, 19.7%는 항상 쾌활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12.1%가 아주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고 했고 3.8%의 학생이 모든 것이 귀찮고 죽고 싶다고 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생의 31.6%가 그저 그렇다고 했고, 28.4%가 대체로 좋다, 26.4%는 항상 쾌활하고 기분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학생의 34.6%가 그저 그렇다, 22.8%가 대체로 좋다, 20.5%가 항상 쾌활하고 기분이 좋다고, 고중생의 42.3%가 그저 그렇다, 32.7%가 대체로 좋다, 12.2%가 항상 쾌

활하고 기분이 좋다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소학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중 항상 쾌활하다는 남학생은 31.2%로 여학생 11.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고중생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에서 남학생이 35.3%로 여학생 47.7%에 비해 낮게 반응되었다.

이상의 것을 개괄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마음상태는 그저 그렇다, 답답하고 짜증난다, 귀찮고 죽고 싶다를 합치면 과반수를 넘는 52.1%의 학생들이 마음상태가 편하지 않음을 말해주어 그들의 고민정도를 예시하여 준다.

아래에 제시된 <표Ⅳ-5>는 청소년의 가정생활의 행복도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이다. 전체 응답자 746명 중 51.7%가 매우 행복하다로, 40.1%가 대체로 행복하다로, 응답하였고, 5.5%가 대체로 불행하다로, 2.7%가 매우 불행하다로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생은 60.0%가 매우 행복하다로, 34.2%는 대체로 행복하다로, 2.2%매우 불행하다로 반응했고, 중학생은 47.2% 매우 행복, 37.5% 대체로 행복, 3.6% 매우 불행하다로, 고중생은 50.0%가 대체로 행복, 42.3%가 매우 행복, 2.6%매우 불행하다고 반응했다.

<표Ⅳ-5>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가정생활 행복도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학생	부모	학생	부모	
매우 행복	93 (60.0)	85 (64.4)	64 (47.1)	39 (47.6)	66 (42.3)	39 (44.8)	386 (51.7)
대체로 행복	53 (34.2)	40 (30.8)	51 (37.5)	38 (46.3)	78 (50.0)	39 (44.8)	299 (40.1)
대체로 불행	5 (3.2)	3 (2.3)	16 (11.8)	3 (3.07)	8 (5.1)	6 (6.9)	41 (5.5)
매우 불행	4 (2.6)	2 (1.5)	5 (3.6)	2 (2.4)	4 (2.6)	3 (3.5)	20 (2.7)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82 (100.0)	156 (100.0)	87 (100.0)	1112 (100.0)

학부모들은 소학교는 64.4%, 중학교는 47.6%가 매우 행복하다가 선차 순이며, 다음은 대체로 행복하다가 소학교 30.8%, 중학교 37.5%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행하다가 1.5% ,2.4%로 나타났다. 고중 학부모들은 매우 행복하다가 44.8%, 대체로 행복하다가 44.8%, 매우 불행하다가 3.5%로 나타났다.

개괄적으로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가정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가정생활 행복도가 학교 급별에 따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Ⅳ-6〉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아주 만족	83 (53.5)	57 (41.9)	27 (19.8)	14 (10.3)	24 (15.4)	15 (15.9)	220 (27.0)
대체로 만족	46 (29.7)	55 (40.4)	73 (53.7)	96 (70.6)	100 (64.1)	51 (54.3)	421 (51.8)
약간 불만족	24 (15.5)	19 (13.8)	27 (19.9)	19 (13.9)	20 (12.8)	15 (15.9)	124 (15.3)
아주 불만족	2 (1.3)	5 (3.8)	9 (6.6)	7 (5.2)	12 (7.7)	13 (13.9)	48 (5.5)
계	155 (100.0)	136 (100.0)	136 (100.0)	136 (100.0)	156 (100.0)	94 (100.0)	813 (100.0)

〈표Ⅳ-6〉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에서 학생자신인 경우 소학생의 53.5%가 아주 만족, 29.7%가 대체로 만족, 1.3%가 아주 불만족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53.7%가 대체로 만족, 19.8%가 아주 만족, 19.9%가 약간 불만족, 6.6%가 아주 불만족으로, 고중생은 64.1% 대체로 만족, 15.4% 아주 만족, 7.7%가 아주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교사들의 시각은 소학교 교사는 41.9%가 아주 만족으로, 40.4%가 대체로 만족으로, 3.8% 아주 불만족으로 보고 있다. 중학교 교사와 고중 교사는 70.6%, 64.1%로 대체로 만족, 13.9%, 15.9%

가 약간 불만족 해한다는 표현을 보였다.

개괄적으로 보면 소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아주 만족이 우선 순위이지만 중학교와 고중은 학생과 교사의 반응이 모두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응답되어 학급 급별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대체로는 만족해 하지만 불만족의 비중도 적지 않다.

〈표Ⅳ-7〉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고민해소 친구유무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학생	부모	학생	부모	
없다	27 (17.4)	17 (13.1)	16 (11.8)	13 (15.9)	21 (13.8)	12 (13.8)	106 (14.2)
한 두명 있다	92 (59.4)	83 (63.8)	80 (58.8)	57 (69.5)	95 (60.9)	45 (51.7)	452 (60.6)
여러명 있다	36 (23.2)	30 (23.1)	40 (29.4)	12 (14.6)	40 (25.6)	30 (34.5)	188 (25.2)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82 (100.0)	156 (100.0)	87 (100.0)	746 (100.0)

〈표Ⅳ-7〉을 살펴보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소학생은 한두 명이 59.4%, 여러 명이 23.2%, 없다가 17.4%로, 중학생은 한두 명이 58.8%, 여러 명이 29.4%, 없다가 11.8%로, 고중생은 한두 명이 60.9%, 여러 명이 25.6%, 없다가 13.8%로 응답되었다.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유무에 대한 응답을 보면 소학교 63.8%, 중학교 69.5%, 고중 51.7%로 학부모 모두가 한두 명 있는 응답이 우선 순위였고, 여러 명 있다에 소학교 23.1%, 중학교 14.6%, 고중 34.5%이고, 없다는 응답에는 소학교 13.1%, 중학교 15.9%, 고중 13.8%이다.

과반수가 넘는 60.6%의 청소년들이 한두 명 있다고 응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 넓게 보다는 깊이 있게 사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가



없다는 비중도 적지 않은데 이것은 이 부류의 청소년들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Ⅳ-8〉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친구관계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아주 잘 지낸다	67 (43.2)	56 (43.1)	54 (39.7)	22 (26.8)	35 (22.4)	24 (27.6)	258 (34.6)
잘 지낸다	67 (43.2)	65 (50.0)	67 (49.3)	48 (58.5)	101 (64.7)	54 (62.1)	402 (53.9)
잘 못 지낸다	14 (9.1)	5 (3.8)	5 (3.7)	8 (9.8)	15 (9.6)	6 (6.9)	53 (7.1)
전혀 잘 못 지낸다	7 (4.5)	4 (3.1)	10 (7.3)	4 (4.9)	5 (3.3)	3 (3.4)	33 (4.4)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82 (100.0)	156 (100.0)	87 (100.0)	746 (100.0)

<표Ⅳ-8>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 응답자 746명중 53.9%가 잘 지낸다, 34.6%가 아주 잘 지낸다고, 7.1%가 잘 지내지 못한다고 반응했으며,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는 4.4%에 해당 되었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생의 경우 43.1%가 아주 잘 지낸다, 43.1% 잘 지낸다고, 같은 수치가 나왔고, 3.1%가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학생과 고중생은 49.3%, 64.7%가 잘 지낸다고 우선 순위로 나타났고,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중학생은 7.3%, 고중생은 3.3%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소학교 학부모는 자녀들이 50.0%가 잘 지낸다고, 43.1%가 아주 잘 지낸다고, 3.1%가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고 반응했다. 중학교와 고중 학부모는 잘 지낸다고 69.5%, 62.1%로 우선 순위이고 아주 잘 지낸다고 26.8%, 27.6%이다.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중학교 학부모가

4.9%, 고중 학부모가 3.4%이다. 개괄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학부모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표Ⅳ-9〉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친구간 갈등 해소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그냥 참고 외면한다	39 (25.2)	45 (34.6)	42 (30.9)	29 (35.4)	48 (30.8)	24 (27.6)	277 (30.4)
위협하거나 싸운다	9 (5.8)	5 (3.8)	4 (2.9)	2 (2.4)	4 (2.6)	6 (6.9)	30 (4.0)
대화로 해결한다	81 (52.3)	64 (49.2)	66 (48.5)	33 (40.2)	79 (50.6)	54 (62.1)	377 (50.5)
편지,전화로 해결한다	26 (16.7)	16 (12.4)	24 (17.7)	18 (22.0)	25 (16.0)	3 (3.4)	112 (15.1)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82 (100.0)	156 (100.0)	87 (100.0)	746 (100.0)

〈표Ⅳ-9〉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친구간의 갈등 해소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746명중 50.5%가 대화로 해결한다, 30.4%가 그냥 참고 외면한다, 15.1%가 편지나 전화로 해결한다고 반응했고, 4.0%는 위협하거나 싸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생은 52.3%가 대화로, 25.2%는 그냥 참고 외면, 16.7%는 편지나 전화로 해결하는 것으로, 5.8%가 위협이나 싸움으로 해소한다고 반응했다. 중학생은 48.5%가 대화로, 30.9%가 그냥 참고 외면, 17.7%가 편지나 전화로 해결한다고 하였다. 고중생은 50.6%가 대화로, 30.8%는 그냥 참고 외면, 16.0%가 편지나 전화로 해소한다고 반응했다.

학부모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소학교, 중학교, 고중 학부모들이 모두 대화로 해결(49.2%, 40.2%, 62.1%)한다가 가장 많았다.

〈표Ⅳ-10〉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고민 처리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혼자 고민	44 (28.4)	18 (13.8)	53 (39.0)	30 (22.1)	13 (15.9)	63 (46.3)	23 (14.7)	18 (20.7)	24 (25.5)	286 (25.7)
의논	68 (43.9)	69 (53.1)	28 (20.6)	75 (55.1)	39 (47.6)	21 (15.4)	92 (59.0)	50 (57.5)	18 (19.1)	460 (41.4)
의논상대 없음	43 (27.7)	17 (13.1)	32 (23.5)	31 (22.8)	16 (19.5)	38 (27.9)	41 (26.3)	10 (11.5)	42 (44.7)	270 (24.3)
모르겠다	0	26 (20.0)	23 (16.9)	0	14 (17.0)	14 (10.4)	0	9 (10.3)	10 (10.7)	96 (8.6)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136 (100.0)	82 (100.0)	136 (100.0)	156 (100.0)	87 (100.0)	94 (100.0)	1112 (100.0)

〈표Ⅳ-10〉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처리에 대한 응답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요구했다. 전체 응답자 1112명중에서 41.4%로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7%가 혼자서 고민하고 24.3%가 의논할 적당한 상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생, 중학생, 고중생, 모두가 다른 사람과 의논(53.2%, 55.1%, 59.0%)을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학생은 혼자서 고민이 28.4%, 중학생, 고중생은 의논할 적당한 상대가 없다고 22.8%, 26.3%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소학교, 중학교, 고중 학부모 모두가 다른 사람과 의논(53.1%, 55.1%, 57.5%)한다가 우선 순위이고, 소학교 잘 모르겠다가 20.2%, 중학교는 의논 할 적당한 상대가 없음이 19.5%, 고중은 혼자서 고민한다가 20.7%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고민 처리에 대한 교사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소학교, 중학교 교사는 혼자서 고민이 39.0%, 46.3%로, 고중은 의논 할 적당한 상대가 없음이 44.7%로 높게 응답되어 혼자서 고민하거나 적당한 상대가 없는 것이 문제로 됨을 시사한다.

〈표Ⅳ-11〉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도움요청 대상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교사	10 (6.5)	28 (21.5)	4 (2.9)	22 (16.2)	1 (1.2)	5 (3.7)	4 (2.6)	12 (13.8)	4 (4.3)	90 (8.1)
부모	52 (33.5)	46 (35.4)	10 (7.4)	29 (21.3)	4 (4.9)	6 (4.4)	23 (14.7)	6 (6.9)	16 (17.0)	202 (18.2)
친구	68 (43.9)	44 (33.8)	116 (85.3)	68 (50.0)	73 (89.1)	123 (90.4)	111 (71.2)	42 (48.3)	68 (72.3)	703 (63.2)
선배	12 (7.7)	7 (5.4)	4 (2.9)	6 (4.4)	2 (2.4)	2 (1.5)	12 (7.7)	18 (20.7)	4 (4.3)	67 (6.0)
친척	13 (8.4)	5 (3.9)	2 (1.5)	11 (8.1)	2 (2.4)	0	6 (3.8)	9 (10.3)	2 (2.1)	50 (4.5)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136 (100.0)	82 (100.0)	136 (100.0)	156 (100.0)	87 (100.0)	94 (100.0)	1112 (100.0)

〈표Ⅳ-11〉은 학생들이 고민해소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한 질문이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교 학생은 친구 43.9%, 부모 33.5% 친척 8.3% 순이었고, 학부모의 응답은 부모 35.4%, 친구 33.8% 교사 21.5%순이었으며, 교사의 응답은 친구 85.3%, 부모 7.4% 교사2.9%로서 친구가 고민해소의 가장 적절한 상대임을 말해준다.

중학교 학생은 친구 50.0%, 부모 21.3% 교사 16.2% 순이고, 학부모의 응답은 친구 89.1%, 부모 4.9%, 선배 2.4%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응답은 친구 90.4%, 부모 4.4%, 교사 3.7%, 순으로 나타났다.

고중 학생은 친구 71.2 %, 부모 14.7%, 선배 7.7% 순으로, 학부모는 친구 48.3%, 선배 20.7%, 교사 13.8% 순으로 교사는 친구 72.3%, 부모 17.0%, 교사 4.3%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반응을 개괄하면 친구 63.2%, 부모 18.2%, 교사 8.1%, 선배 6.0%, 친척 4.5% 순으로 응답되었는데 고민해소를

위한 도움대상이 친구가 63.2%로 아주 높은 반면, 교사가 8.1%로 너무 적게 나타났다.

〈표Ⅳ-12〉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도움 요청 방법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전화로	29 (18.7)	46 (35.4)	34 (25.0)	40 (29.4)	21 (25.6)	68 (50.0)	24 (15.4)	24 (27.6)	28 (29.8)	314 (28.2)
편지로	20 (12.9)	22 (16.9)	18 (13.2)	23 (16.9)	18 (22.0)	12 (8.8)	26 (16.7)	9 (10.3)	50 (53.2)	198 (17.8)
만나서	106 (68.4)	62 (47.7)	84 (61.8)	73 (53.7)	43 (52.4)	56 (41.2)	106 (67.9)	54 (67.1)	16 (17.0)	600 (54.0)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136 (100.0)	82 (100.0)	136 (100.0)	156 (100.0)	87 (100.0)	90 (100.0)	1112 (100.0)

〈표Ⅳ-12〉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고민 해소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54.0%가 직접 만나서, 28.2%가 전화로, 17.8%가 편지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직접 만나서(68.4%, 47.7%, 61.8%), 전화로(18.7%, 35.4%, 25.0%), 편지로(12.9%, 16.9%, 13.2%) 순으로 응답했다. 중학교 학생, 학부모는 직접 만나서(53.7%, 52.4%), 교사는 전화(50.0%)가 우선 순위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전화로(29.4%, 25.6%), 교사는 만나서 (41.2%)가 다음 순위이며 나머지는 편지(16.9%, 22.0%, 18.8%)로 응답했다.

고중의 학생과 학부모는 직접 만나서( 67.9%, 67.1%), 교사는 편지 53.2%가 우선 순위로, 다음으로는 학생은 편지(16.7%), 학부모와 교사는 전화(27.6%, 29.8%)로 응답했다.

〈표Ⅳ-13〉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원하는 도움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고민 호소	40 (25.8)	18 (13.8)	31 (22.8)	31 (22.8)	8 (9.8)	17 (12.5)	36 (23.1)	16 (18.4)	29 (30.9)	26 (20.3)
이해 위로	16 (10.3)	20 (15.4)	34 (25.0)	32 (23.5)	19 (23.2)	52 (38.2)	43 (27.6)	25 (28.7)	38 (40.4)	279 (25.1)
조언 충고	11 (7.2)	10 (7.7)	26 (19.1)	12 (8.8)	13 (15.9)	36 (26.5)	14 (9.0)	14 (16.2)	14 (14.9)	150 (13.5)
정보 섭취	5 (3.2)	5 (3.8)	9 (6.6)	10 (7.4)	6 (7.3)	5 (3.7)	17 (10.9)	9 (10.3)	6 (6.4)	72 (6.5)
문제 이해	31 (20.0)	17 (13.1)	17 (12.5)	26 (19.1)	8 (9.8)	17 (12.5)	8 (5.2)	12 (13.8)	4 (4.3)	140 (12.6)
문제 해결	52 (33.5)	60 (46.2)	19 (14.0)	25 (18.4)	28 (34.0)	9 (6.6)	38 (24.2)	11 (12.6)	3 (3.1)	245 (22.0)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136 (100.0)	82 (100.0)	136 (100.0)	156 (100.0)	87 (100.0)	94 (100.0)	1112 (100.0)

〈표Ⅳ-13〉에서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의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1%가 이해나 위로, 22.0%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3%가 고민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소학교 학생은 문제해결 능력(33.5%), 고민호소(25.8%), 문제이해(20.0%) 순으로 응답했다. 학부모는 문제해결 능력(46.2%), 이해나 위로(15.4%), 고민호소(13.8%)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는 이해나 위로(25.0%), 고민호소(22.8%), 조언이나 충고(19.1%)로 응답했다.

중학교 학생은 이해나 위료가 23.5%, 고민호소가 22.8%, 문제이해가 19.1%로 응답했고, 학부모는 문제해결 능력(34.0%), 이해나 위로 (23.2%), 조언이나 충고 (15.9%)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는 이해나 위로(38.2%), 조언이나 충고(26.5%), 문제이해(12.5%) 순위로 응답했다.

고중 학생은 이해나 위료가 27.6%, 문제해결능력이 24.2%, 고민호소를

23.1%로 응답, 학부모는 이해나 위로(28.7%), 고민호소(18.4%), 조언이나 충고(16.2%)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는 이해나 위로 40.4%, 고민호소 30.9%, 조언이나 충고 14.9%순으로 응답했다.

〈표Ⅳ-14〉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도움요청시 성과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 중		계
	학생	부모	학생	부모	학생	부모	
큰 도움	62 (40.0)	48 (30.9)	34 (25.0)	20 (24.4)	31 (19.6)	25 (28.8)	220 (29.5)
다소도움	44 (28.4)	56 (43.1)	52 (38.2)	35 (42.7)	79 (50.6)	37 (42.5)	303 (40.6)
그저 그렇다	41 (26.5)	22 (16.9)	28 (20.6)	26 (31.7)	40 (25.7)	18 (20.7)	175 (23.5)
도움 못 받았다	3 (1.9)	3 (2.3)	14 (10.3)	1 (1.2)	0	7 (8.0)	28 (3.8)
더 어려워졌다	5 (3.2)	1 (0.8)	8 (5.9)	0	6 (3.8)	0	20 (2.6)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82 (100.0)	156 (100.0)	87 (100.0)	746 (100.0)

〈표Ⅳ-14〉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원하는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746중 40.6%가 다소 도움을, 29.5%큰 도움을, 23.5%가 그저 그렇다로 반응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교 학생은 큰 도움을 받았다가 40.0%, 다소 도움을 받았다가 28.4%, 그저 그렇다가 26.5%로 반응했고, 학부모는 다소 도움을 받았다가 43.1%, 큰 도움 받았다가 30.9%, 그저 그렇다가 16.9% 순으로 반응했다.

중학교 학생은 다소 도움을 받았다가 38.2%, 큰 도움을 받았다가 25.0%, 그저 그렇다가 20.6% 순으로 반응했고, 학부모는 다소 도움을 받았다가 42.7%, 그저 그렇다가 31.7%, 큰 도움을 받았다가 24.4%로 반응했다.

고중 학생은 다소 도움을 받았다가 50.6%, 그저 그렇다가 25.7%, 큰 도움을 받았다가 19.6%였으며, 학부모는 다소도움 42.5%, 큰 도움 28.8%, 그저 그렇다 20.7%로 반응했다.

개괄적으로 보면 도움요청 시 70.1%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5〉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학생의 고민문제의 정도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아주 많다	11 (7.1)	5 (3.8)	4 (2.9)	10 (7.4)	7 (8.5)	7 (5.1)	12 (7.7)	3 (3.4)	12 (12.8)	71 (6.4)
다소 많다	22 (14.2)	12 (9.2)	43 (31.6)	33 (24.3)	19 (23.2)	80 (58.8)	44 (28.2)	15 (17.2)	46 (48.9)	314 (28.2)
그저 그렇다	53 (34.2)	32 (24.6)	55 (40.5)	45 (33.1)	21 (25.6)	37 (27.2)	57 (36.5)	45 (51.7)	28 (29.8)	373 (33.5)
거의 없다	46 (29.7)	45 (34.6)	32 (23.5)	36 (26.5)	26 (31.7)	12 (8.9)	41 (26.3)	24 (21.7)	8 (8.5)	270 (24.4)
전혀 없다	23 (14.8)	36 (27.8)	2 (1.5)	12 (8.7)	9 (11.0)	0	2 (1.3)	0	0	84 (7.6)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136 (100.0)	82 (100.0)	136 (100.0)	156 (100.0)	87 (100.0)	94 (100.0)	1112 (100.0)

〈표Ⅳ-15〉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정도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응답자 1112명중 33.5%가 그저 그렇다, 28.8%가 다소 많다, 24.4%가 거의 없다로 반응했고 아주 많다는 6.4%이다.

학교 급별로 소학교 학생의 34.2%가 그저 그렇다, 29.7%가 거의 없다, 14.8%가 전혀 없다로 반응했고, 학부모는 34.6%가 거의 없다, 27.8%는 전혀 없다, 24.6%는 그저 그렇다로 반응했고, 교사의 40.5%는 그저 그렇다, 31.6%는 다소 많다, 23.5%는 거의 없다로 반응했다.



중학교 학생 중 33.1%가 그저 그렇다, 26.5%가 거의 없다, 24.3%가 다소 많다고 반응했고, 학부모는 31.7%가 거의 없다, 25.6%가 그저 그렇다, 23.2%가 다소 많다 순으로 반응했으며, 교사는 58.8%가 다소 많다, 27.2%가 그저 그렇다, 8.9%는 거의 없기로 반응하였다. 고중 학생의 36.5%가 그저 그렇다, 28.2%가 다소 많다, 26.3%는 거의 없기로 반응했고, 학부모중의 17.2%가 다소 많다, 51.7%가 그저 그렇다, 21.7%가 거의 없기로 반응했으며, 교사의 48.9%가 다소 많다, 29.8%가 그저 그렇다, 12.8%가 아주 많다고 반응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70%가 넘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표Ⅳ-16-1〉학교 급별로 본 학생의 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명(%)

구분	문항	순위	소학생	중학생	고중생	계
학습 문제	①집중력부족	1	①53(34.2)	③61(44.9)	①129(82.6)	①230(51.5)
	②성적저하	2	②45(29.0)	②58(42.6)	③ 69(44.2)	②171(38.3)
	③시험압력	3	③23(14.8)	①48(35.3)	② 68(43.6)	③153(34.2)
친구 문제	①친구와의 갈등	1	②42(27.1)	②30(22.1)	① 32(20.5)	① 98(21.9)
	②너무 많은 친구	2	①37(23.9)	①29(21.3)	③ 20(12.8)	② 91(20.4)
	③이성친구가 없음	3	③16(10.3)	③15(11.0)	② 19(12.2)	③ 51(11.4)
성격 문제	①내성적인 성격	1	①51(32.9)	①49(36.0)	① 58(37.2)	①158(35.3)
	②과격,급한 성격	2	②28(18.1)	②26(19.1)	③ 40(25.6)	② 87(19.5)
	③충동적인 성격	3	③17(11.0)	③20(14.7)	② 33(21.2)	③ 67(15.0)
자아 통제	①잡은 싸움	1	④33(21.3)	④38(27.9)	④ 51(32.7)	④122(27.3)
	②폭력행위	2	①26(16.8)	①22(16.2)	① 21(13.5)	① 69(15.4)
	③인터넷 중독증	3	②17(11.0)	②19(14.0)	③ 20(12.8)	② 57(12.8)
	④흡연, 음주	4	③14(9.0)	③16(11.8)	② 16(10.3)	③ 50(11.2)
응답자			155	136	156	447

<표IV-16-1>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학습문제- 전체응답자(447)에서 집중력 부족(51.1%), 성적저하 (38.3%), 시험불안 (34.2%)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생은 집중력 부족(34.2%), 성적저하(29.0%), 시험압력(14.8%)순으로 반응했고, 중학생은 시험압력(44.9%), 성적저하(42.6%), 집중력 부족(35.3%)순으로 반응했다. 고중생은 집중력 부족(82.6%), 시험압력(44.2%), 성적저하(43.6%)순으로 반응했다.

이상의 것을 정리해보면 학습문제에서 학생들의 고민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많은 고민 문제가 과중한 학습부담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문제- 전체응답자의 21.9%가 친구와의 갈등을 느낀다고 호소했고 20.4%는 친구가 너무 많음, 11.4%는 이성친구가 없어 고민이라고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생은 친구가 너무 많음(27.1%), 갈등(23.9%), 이성친구가 없음(10.3%) 순으로 응답했고, 중학생은 너무 많음( 22.1%), 갈등(21.3%), 이성 친구가 없음(11.0%)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중생은 갈등(20.5%), 이성친구 없음(12.8%), 친구 너무 많음(12.2%)순으로 응답했다.

성격문제- 전체응답자의 35.3%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19.5%는 과격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15.0%는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라고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소학생은 내성적(32.9%), 과격하고 급한 성격(18.1%), 충동적인 성격(11.0%) 순으로 응답했고, 중학생은 내성적인 성격(36.0%), 과격하고 급한 성격(19.1%), 충동적인 성격(14.7%) 순으로 응답, 고중생은 내성적인 성격(37.2%), 충동적인 성격(25.6%), 과격하고 급한 성격(21.2%)순으로 응답했다

자아통제- 전체응답자중 27.3%가 흡연, 음주, 15.4%는 잦은 싸움, 12.8%는 폭력행위 , 11.2%가 인터넷 중독증으로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생, 중학생, 고중생이 모두 흡연, 음주(21.3%, 27.9%, 32.7%)가 가장 통제하기 힘들다고 반응했고 다음으로 싸움(16.8%, 16.2%, 13.5%), 다음은 소학생, 중학생은 폭력행위(11.0%, 14.0%), 고중생은 인터넷

중독(12.8%)으로 반응했고, 소학생, 중학생은 인터넷 중독증(9.0%, 11.8%), 고  
 중생은 폭력행위(10.3%)로 반응했다

〈표Ⅳ-16-2〉학교 급별로 본 학생의 고민하는 문제의 우선 순위

명(%)

구분	문항	순위	소학생	중학생	고중생	계
성 문 제	①성에 대한지나친관심	1	①35(22.6)	②27(19.9)	②24(15.4)	②73(16.3)
	②이성교제	2	②22(14.2)	①17(12.5)	③14(9.0)	①63(14.4)
	③연애	3	③ 2(1.3)	③ 8(5.9)	①11(7.1)	③24(5.4)
심 리 문 제	①신경증	1	①30(19.4)	①41(30.1)	①40(25.6)	①111(24.8)
	②우울증	2	②19(12.3)	③38(27.9)	②39(25.0)	② 88(19.7)
	③외모에 대한 열등감	3	③13(8.4)	②30(22.1)	③20(12.8)	③ 71(15.9)
	④자살에 대한 생각	4	④ 0	④ 5(3.6)	④ 8(5.1)	④ 13(2.9)
신 체 문 제	①신체발육의 부족	1	③36(23.2)	③28(20.6)	③38(24.4)	③102(22.8)
	②신체장애	2	①17(11.0)	①15(11.0)	①22(14.1)	① 54(12.1)
	③신체허약	3	②12(7.7)	②14(10.3)	② 4(2.6)	② 30(6.7)
경 제 문 제	①가정경제의 어려움	1	②29(18.7)	②25(18.4)	②37(23.7)	②91(20.4)
	②용돈의 부족	2	①15(9.7)	③15(11.0)	①30(19.2)	①59(13.2)
	③학비, 잡비 등	3	③11(7.1)	①14(10.3)	③ 8(5.1)	③34(7.6)
가 정 문 제	①부모와의 갈등	1	②47(30.3)	③52(38.2)	③43(27.6)	③121(27.1)
	②부모에 대한 그리움	2	③26(16.7)	②29(21.3)	②32(20.5)	②108(24.2)
	③부모의 과잉기대	3	①12(7.7)	①17(12.5)	①30(19.2)	① 59(13.2)
기 타	①교사와의 갈등	1	①15(9.7)	③38(27.9)	③21(13.5)	③69(15.4)
	②교사폭력	2	③10(6.5)	①14(10.3)	①10(6.4)	①39(8.7)
	③연예인에 대한 관심	3	② 8(5.2)	② 5(3.7)	② 3(1.9)	②18(4.0)
응답자			155	136	156	447

<표IV-16-2>의 학교 급별로 본 고민문제를 문항별로 개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성 문제- 전체 응답자 중의 16.3%가 이성교제 14.4%는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5.4%는 연애가 고민거리라고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생은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22.6%), 이성교제(14.2%), 연애(1.3%)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이성교제(19.9%), 지나친 관심(12.5%), 연애(30.1%) 순으로, 고중생은 15.4%가 이성교제, 9.0%가 연애, 7.1%가 지나친 관심으로 응답했다

성에 대한 질문에서 60%이상의 학생들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에 대하여 아직도 정확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성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심리문제- 전체 응답자의 39.9%가 우울증을, 33.3%는 신경증, 32.2%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 2.9%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급별로 소학생은 우울증(41.2%), 신경증(36.8%), 외모 열등감(12.5%) 순으로 반응, 중학생 우울증(45.6%), 신경증(44.1%), 외모 열등감(39.0%)순으로, 고중생은 외모 열등감(51.1%), 우울증(31.9%), 신경증(12.8%)순으로 반응했다.

신체문제- 전체 응답자의 22.8%는 신체 허약, 12.1%가 발육부족, 신체장애는 6.7%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교, 중학교, 고중 학생 모두가 신체 허약(23.2%, 20.6%, 24.4%)이 첫 순위로 나타났다.

경제문제- 응답자의 20.4%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13.2%가 경제 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정문제- 응답자의 27.1%가 부모의 과잉기대, 24.2%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13.2%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생은 그리움(30.3%), 과잉기대(16.7%), 갈등 (7.7%)순으로 대답했고, 중학생은 과잉기대(38.2%), 그리움(21.3%), 갈등(12.5%),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중생은 과잉기대(27.6%), 그리움 (20.5%), 갈등(19.2%)순으로 반응했다.

기타 문제- 응답자중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15.4%, 교사와의 갈등이 8.7% 교사폭력이 4.0%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생은 연예인에 대한 관

심이 9.7%, 교사와의 갈등이 6.5%, 교사 폭력이 5.2%로, 중학생은 27.9%가 연예인에 대한 관심, 10.3%가 교사와의 갈등, 3.7%는 교사 폭력으로, 고중생은 13.5%가 연예인에 대한 관심, 6.4%는 교사와의 갈등, 1.9%가 교사 폭력으로 응답했다.

위의 응답으로부터 심리문제에서의 고민이 다른 문항보다 특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 부류의 청소년들이 연예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사와의 갈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다.

아래에 제시된 <표Ⅳ-17-1>은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응답이다.

문항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학습문제에서 전체 응답자중의 41.1%가 집중력 부족, 34.7%가 시험압력, 34.1%는 성적 저하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았다.

친구문제에서는 전체응답자 중의 18.7%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14.4%는 이성친구가 없음으로, 9.0%는 너무 많은 친구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았다.

성격문제에서는 전체응답자 중의 38.1%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23.7%는 과격하고 급한 성격으로, 13.7%는 충동적인 성격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들의 자아통제문제에서 전체응답자 중의 31.4%가 흡연, 음주로, 10.7%는 인터넷 중독증으로, 10.4%잡은 싸움으로, 8.0%폭력 행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위의 몇 가지 질문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습문제에서 집중력 부족, 시험불안 등이 주요문제로 입증되고, 성격문제에서는 내성적인 성격, 자아통제면에서는 흡연, 음주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나타났다.

〈표Ⅳ-17-1〉 학부모가 본 자녀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명(%)

구분	문항	순위	소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고 중 학부모	계
학습 문제	①집중력부족	1	①39(30.0)	②44(53.6)	①48(55.2)	①123(41.1)
	②성적저하	2	③32(24.6)	①36(43.9)	③39(44.8)	③104(34.7)
	③시험압력	3	②31(23.8)	③33(40.2)	②27(31.0)	②102(34.1)
친구 문제	①친구와의 갈등	1	③25(19.3)	①14(17.1)	①18(20.7)	①56(18.7)
	②너무 많은 친구	2	①24(18.5)	②12(14.6)	③ 9(10.3)	③43(14.4)
	③이성친구가 없음	3	② 9(6.9)	③ 9(11.0)	② 6(6.9)	②27(9.0)
성격 문제	①내성적인 성격	1	①54(41.5)	①24(29.3)	①36(41.4)	①114(38.1)
	②과격하고 급한 성격	2	③20(15.4)	③21(25.6)	③30(34.5)	③ 71(23.7)
	③충동적인 성격	3	②18(13.8)	②11(13.4)	②12(13.8)	② 41(13.7)
자아 통제	①잡은 싸움	1	④37(28.5)	④24(29.3)	④33(38.0)	④94(31.4)
	②폭력행위	2	①13(10.0)	③12(14.6)	③12(13.8)	③32(10.7)
	③인터넷 중독증	3	③ 8(6.2)	①11(13.4)	②9(10.3)	①31(10.4)
	④흡연, 음주	4	② 6(4.6)	② 9(10.9)	① 7(8.0)	②24(8.0)
응답자			130	82	87	299

〈표Ⅳ-17-2〉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문제에서 성 문제부터 기타까지의 여러 영역에서의 학부모들의 시각을 보여 주었다. 그 영역별 응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 문제에서 응답자의 8.7%가 이성교제문제로, 6.0%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4.7%연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중생이 이성교제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심리문제에서는 응답자중의 35.1%가 신경증으로, 15.1%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고민하며, 4.7%는 우울증을 호소하고, 2.5%가 자살에 대해 생각한

다고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생과 고중생이 신경증(30.45, 68.9%)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표Ⅳ-17-2〉학부모가 본 자녀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명(%)

구분	문항	순위	소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고 중 학부모	계
성 문제	①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1	①9(6.9)	②7(8.5)	②12(13.8)	②26(8.7)
	②이성교제	2	②7(5.4)	①3(3.7)	③ 9(10.3)	①18(6.0)
	③연애	3	③4(3.1)	③1(1.2)	① 6(6.8)	③14(4.7)
심리 문제	①신경증	1	①20(15.4)	①25(30.4)	①60(68.9)	①105(35.1)
	②우울증	2	③ 9(6.9)	③ 9(11.0)	③27(31.0)	③45(15.1)
	③외모에 대한 열등감	3	② 8(6.2)	② 4(4.9)	②12(13.8)	②24(4.7)
	④자살에 대한 생각	4	④ 0	④ 3(3.6)	④ 5(5.7)	④11(2.5)
신체 문제	①신체발육의 부족	1	③21(16.2)	③22(26.8)	③27(31.0)	③70(23.4)
	②신체장애	2	①11(8.5)	①10(12.1)	① 9(10.3)	①30(10.0)
	③신체 허약	3	② 4(3.1)	② 2(2.4)	② 3(3.4)	② 9(3.0)
경제 문제	①가정경제의 어려움	1	①17(13.1)	②18(22.0)	①24(27.6)	①55(18.3)
	②용돈의 부족	2	②14(10.8)	③15(18.2)	②15(17.2)	②47(15.7)
	③학비, 잡비 등	3	③ 9(6.9)	①14(17.0)	③12(13.8)	③36(12.0)
가정 문제	①부모와의 갈등	1	②33(25.4)	②12(14.6)	②18(20.7)	②63(21.1)
	②부모에 대한 그리움	2	③14(10.8)	① 8(9.8)	③15(17.2)	③36(12.0)
	③부모의 과잉기대	3	①10(7.7)	③ 7(8.5)	①12(13.8)	①30(10.0)
기타	①교사와의 갈등	1	③12(9.2)	③17(20.7)	③15(17.2)	③44(14.7)
	②교사폭력	2	① 2(1.5)	① 5(6.1)	① 9(10.3)	①16(5.0)
	③연예인에 대한 관심	3	② 1(0.7)	② 2(2.4)	② 3(3.4)	② 6(2.0)
응답자			130	82	87	299

신체문제에서 소학교, 중학교, 고중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자녀들의 신체허약(23.4%)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나타냈고, 다음은 신체 발육 부족(10.0%), 신체장애(3.0%)로 고민한다고 나타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급별이 높을

수록 신체가 허약한 (16.2%, 26.8%, 31.0%)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문제에서는 응답자의 18.3%가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15.7%가 용돈의 부족으로 12.0%는 학비, 잡비 등으로 고민한다고 나타났다.

가정문제에서는 소학교, 중학교, 고중의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첫 순위로 부모에 대한 그리움(21.1%)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과잉기대(12.0% 10.0%)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영역에서는 응답자중의 14.7%가 연예인에 대한 관심, 5.0%가 교사와의 갈등, 2.0%는 교사의 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9.2%, 20.7%, 17.2%)공통한 첫 순위로 반응되었고 그중 중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Ⅳ-18-1〉 교사들이 본 학생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명(%)

구분	문항	순 위	소학생	중학생	고중생	계
학습 문제	①집중력부족	1	②62(45.6)	①54(39.7)	②32(34.0)	②144(39.3)
	②성적저하	2	①60(44.1)	②50(36.8)	①30(31.9)	①140(38.2)
	③시험압력	3	③56(39.7)	③47(34.6)	③28(29.8)	③135(36.8)
친구 문제	①친구와의 갈등	1	①65(47.8)	①51(37.5)	①34(36.2)	①150(40.9)
	②너무 많은 친구	2	③51(37.5)	②45(33.1)	③28(29.8)	③105(28.6)
	③이성친구가 없음	3	②29(21.3)	③26(19.1)	②26(27.7)	②100(27.3)
성격 문제	①내성적인 성격	1	③64(47.1)	③53(39.0)	②38(40.4)	②143(39.0)
	②과격하고 급한 성격	2	②56(41.2)	②49(36.0)	③24(25.5)	③141(38.5)
	③충동적인 성격	3	①39(28.7)	①37(21.2)	①20(21.3)	① 96(26.2)
자아 통제	①짚은 싸움	1	④86(63.2)	④64(47.1)	③46(48.9)	④194(53.0)
	②폭력행위	2	②29(21.3)	③53(39.0)	④44(46.8)	③116(31.6)
	③인터넷 중독증	3	①25(18.4)	①38(27.9)	①26(27.7)	① 89(24.3)
	④흡연, 음주	4	③17(12.5)	②26(19.1)	②15(15.9)	② 70(19.1)
응답자			136	136	94	366



<표Ⅳ-18-1>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시각이다.

고민거리의 유형별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학습문제에서 전체 응답자 중 39.3%가 성적저하, 38.2%가 집중력 부족, 36.8%가 시험 압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생이 성적저하(45.6%), 중학생은 집중력 부족(39.7%), 고중생도 집중력 부족(34.0%)이라고 가장 높게 반응되었다.

교사들의 응답에서 학습문제에서 학생들의 고민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서 고민문제의 비중이 학습문제가 높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친구문제에서 응답자의 40.9%가 갈등, 28.6%는 이성 친구가 없어서, 27.3%는 너무 많은 친구가 고민이라고 응답했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교, 중학교, 고중 교사 모두가 학생들의 친구와의 갈등( 47.8%, 37.5%, 36.2%)을 고민의 우선 순위로 보았다.

성격문제에서의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9.0%가 과격하고 급한 성격38.5%가 충동적인 성격, 26.2%가 내성적인 성격이 고민거리로 된다고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소학교, 중학교는 충동적인 성격(47.1%, 39.0%)으로 고중은 과격하고 급한 성격(40.4%)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아통제 면에서의 교사 응답을 보면 응답자의 53.0%가 흡연, 음주, 31.6%가 인터넷 중독증, 24.3%가 잦은 싸움, 19.1%는 폭력 행위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교, 중학교는 흡연, 음주(63.2%, 47.1%)로 고중은 인터넷 중독증(48.9%)으로 응답했다.

위의 응답으로부터 현재 흡연이나 음주, 인터넷 중독증세가 청소년들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표Ⅳ-18-2〉교사들이 본 학생고민문제의 우선 순위

명(%)

구분	문항	순 위	소학교사	중학교사	고중교사	계
성 문제	①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1	②56(41.1)	③74(54.4)	②42(44.7)	②138(37.7)
	②이성교제	2	③ 9(6.6)	②40(29.4)	③32(34.0)	③115(31.4)
	③연애	3	① 6(4.4)	① 6(4.4)	①16(17.0)	① 28(7.7)
심리 문제	①신경증	1	②56(41.2)	②62(45.6)	③48(51.1)	②146(39.9)
	②우울증	2	①50(36.8)	①60(44.1)	②30(31.9)	①122(33.3)
	③외모에 대한 열등감	3	③17(12.5)	③53(39.0)	①12(12.8)	③118(32.2)
	④자살에 대한 생각	4	④ 0	④ 4 (2.9)	④ 2 (2.1)	④ 6 (1.7)
신체 문제	①신체발육의 부족	1	③71(52.2)	③63(46.3)	③56(59.6)	③190(51.9)
	②신체장애	2	①16(11.8)	①38(27.9)	②18(19.1)	① 58(15.8)
	③신체허약	3	②14(10.3)	②12(8.8)	① 4(4.3)	② 53(14.5)
경제 문제	①가정경제의 어려움	1	③102(75.0)	①69(50.7)	②36(38.3)	①176(48.1)
	②용돈의 부족	2	② 31(22.8)	②63(46.3)	③34(36.2)	②143(39.1)
	③학비, 잡비 등	3	① 30(22.1)	③22(16.2)	①30(31.9)	③ 69(18.9)
가정 문제	①부모와의 갈등	1	①62(45.6)	③57(41.9)	③42(44.7)	③201(54.9)
	②부모에 대한 그리움	2	②44(32.4)	①47(34.6)	①24(25.5)	①101(27.5)
	③부모의 과잉기대	3	③13(9.6)	②43(31.6)	②18(19.1)	② 92(25.1)
기타	①교사와의 갈등	1	③28(20.6)	③62(45.6)	③42(44.7)	③132(36.1)
	②교사폭력	2	①25(18.4)	①39(28.7)	①28(29.8)	① 92(25.1)
	③연예인에 대한 관심	3	② 5(3.7)	② 4(2.9)	② 0	② 9(2.4)
응답자			136	136	94	336

〈표Ⅳ-18-2〉에서 성 문제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교사들의 시각은 이성교제, 연애, 성에대한 지나친 관심 (37.7%,31.4%, 7.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소학교는 이성교제(41.1%), 중학교 연애(54.4), 고중은 이성교제(44.7%)가 가장 높게 반응되었다.

심리문제에서 교사의 반응은 전체 응답자의 39.9%가 우울증으로, 33.3%가 신경증으로, 32.2%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고민한다고 응답했고 자살을 생각한다는 1.7%로 나타났다.

신체문제에서는 응답자중 51.9%가 신체 허약으로, 15.8%가 발육의 부족으로 14.5%가 장애로 고민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모두 신체 허약이 가장 우선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 반응한 순위는 아래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48.1%, 용돈의 부족은 39.1%, 학비, 잡비는 18.9%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부모들의 과잉기대 라고 반응한 교사는 54.9% 이고, 27.5%는 부모와의 갈등, 25.1%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반응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과잉기대가 가장 우선 순위(75.0%, 41.9%, 44.7%)로 나타났다.

기타 문제에서 교사들의 반응은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반응과 공통하게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이 본 학생들의 교사와의 갈등은 학생들 5.0%나 학부모 8.7%에 비해 25.1%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Ⅳ-19〉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기관, 상담실 이용 유무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있다	89 (57.4)	113 (86.9)	126 (92.6)	96 (70.6)	74 (90.2)	131 (96.3)	116 (74.4)	69 (79.3)	72 (76.6)	886 (79.7)
없다	66 (42.6)	17 (13.1)	10 (7.4)	40 (29.4)	8 (9.8)	5 (3.7)	40 (25.6)	18 (20.7)	22 (23.4)	226 (20.3)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136 (100.0)	82 (100.0)	136 (100.0)	156 (100.0)	87 (100.0)	94 (100.0)	1112 (100.0)

<표Ⅳ-19>를 살펴보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의 심리자문실을 이용하겠다는 전체 응답자의 79.7%이다.

이용하겠다는 학교 급별, 대상으로 분류해 보면 소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57.4%, 86.9%, 92.6%)중 교사가 제일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70.6%, 90.2%, 96.3%)중 교사 1위, 학부모가 2위로 나타났다.

고중은 학생, 학부모, 교사(74.4%, 79.3%, 79.7%)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Ⅳ-20>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기관, 상담실 이용의도

명(%)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적극적으로	47 (30.3)	71 (54.6)	75 (55.1)	35 (25.7)	39 (47.6)	60 (44.1)	25 (16.0)	22 (25.3)	44 (46.8)	418 (37.6)
때때로 이용	73 (47.1)	47 (36.2)	44 (32.4)	76 (55.9)	26 (31.7)	71 (52.2)	65 (41.7)	39 (44.8)	26 (27.6)	467 (42.0)
거의 이용안함	24 (15.5)	8 (6.2)	11 (8.1)	16 (11.8)	13 (15.9)	3 (2.2)	45 (28.8)	17 (19.5)	12 (12.8)	149 (13.4)
전혀 이용안함	11 (7.1)	4 (3.0)	6 (4.4)	9 (6.6)	4 (4.8)	2 (1.5)	21 (13.5)	9 (10.4)	12 (12.8)	78 (7.0)
계	155 (100.0)	130 (100.0)	136 (100.0)	136 (100.0)	82 (100.0)	136 (100.0)	156 (100.0)	87 (100.0)	94 (100.0)	1112 (100.0)

<표Ⅳ-20>를 살펴보면 대상에 따라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가를 알아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37.6%가 적극적으로 이용, 42.0%는 때때로 이용, 13.4%는 거의 이용하지 않겠다고, 7.0%는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응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대상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소학교 부모와 교사(54.6%, 55.1%)가 가장 높게 반응 되었고, 다음은 고중 교사(46.8%), 중학교 부모(47.6%), 중학교 교사(44.1%) 순으로 반응되었다.

학생은 소학교(30.3%)가 가장 높게, 다음 중학교(25.7%), 고중 (16.0%)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자문실에 대한 이용 정도를 개괄하여 보면 거의 80%가 적극적이거나 때때로 이용할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표IV-21>(1.2.3)은 심리자문실 이용의 상담영역과 이용 요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모든 응답자가 학습문제, 친구문제, 성격문제, 자아공제문제에 대한 원하는 상담영역과 요구에 대한 해답이다.

매 문제부류에서 <반드시 상담 받고 싶다>가 제1순위로 된 문항들로는 모두 4가지부류가 나타났는데 학습문제가 전체응답자의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성격문제가 46.9%로, 심리문제가 41.9%, 자아통제는 35.6%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친구문제(37.3%), 신체문제(34.7%), 경제문제(32.9%), 성문제(30.9%), 가정문제(30.3%), 기타(29.0%) 순으로 나타났다.

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0개 부류의 문제에서 모두 1위 2위가<반드시 받고 싶다>거나 <받고 싶다>로 나타난 것은 상담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

〈표Ⅳ-21-1〉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요구영역

명(%)

구분	문항 번호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학부모	교사	
학습 문제	①	92 (59.4)	92 (70.8)	127 (93.4)	76 (55.9)	62 (75.6)	106 (77.9)	83 (53.2)	54 (62.1)	58 (61.8)	750 (67.4)
	②	38 (24.5)	25 (19.2)	8 (5.9)	40 (29.3)	12 (14.6)	25 (18.4)	56 (35.9)	27 (31.0)	32 (34.0)	263 (23.7)
	③	11 (7.1)	11 (8.5)	1 (0.7)	10 (7.4)	6 (7.3)	5 (3.7)	14 (9.0)	6 (6.9)	2 (2.1)	66 (5.9)
	④	14 (9.0)	2 (1.50)	0	10 (7.4)	2 (2.5)	0	3 (1.9)	0	2 (2.1)	33 (3.0)
친구 문제	①	60 (38.7)	50 (38.5)	43 (31.6)	39 (28.7)	29 (35.4)	75 (55.1)	48 (30.8)	30 (34.5)	40 (42.6)	414 (37.2)
	②	49 (31.6)	36 (27.7)	69 (50.7)	58 (42.6)	28 (34.1)	50 (36.8)	57 (36.5)	20 (23.0)	48 (51.0)	415 (37.3)
	③	34 (21.9)	27 (20.8)	16 (11.8)	25 (18.4)	12 (14.6)	8 (5.9)	33 (21.2)	28 (32.2)	3 (3.2)	186 (16.7)
	④	12 (7.8)	17 (13.0)	8 (5.9)	14 (10.3)	13 (15.9)	3 (2.2)	18 (11.5)	9 (10.3)	3 (3.2)	97 (8.8)
성격 문제	①	73 (47.1)	68 (52.3)	57 (41.9)	42 (30.9)	36 (43.9)	82 (60.3)	58 (37.2)	15 (17.2)	38 (40.4)	469 (42.2)
	②	45 (29.0)	39 (30.0)	52 (38.2)	44 (32.4)	20 (24.4)	43 (31.6)	56 (35.1)	36 (41.4)	46 (49.0)	381 (34.3)
	③	25 (16.1)	16 (12.3)	20 (14.7)	29 (21.3)	15 (18.3)	7 (5.2)	26 (16.7)	27 (31.0)	10 (10.6)	175 (15.7)
	④	12 (7.8)	7 (5.4)	7 (5.2)	21 (15.4)	11 (13.4)	4 (2.9)	16 (10.2)	9 (10.4)	0	87 (7.8)
자아 통제	①	46 (29.7)	51 (39.2)	63 (46.3)	41 (30.1)	31 (37.9)	61 (44.9)	47 (30.2)	20 (23.0)	36 (38.3)	396 (35.6)
	②	49 (31.6)	34 (26.2)	43 (31.6)	55 (40.4)	27 (32.9)	52 (38.2)	52 (33.3)	23 (26.4)	42 (44.7)	377 (33.9)
	③	28 (18.1)	23 (17.7)	23 (16.9)	19 (14.0)	12 (14.6)	18 (13.2)	37 (23.7)	32 (36.8)	14 (14.9)	206 (18.5)
	④	32 (20.6)	22 (16.9)	7 (5.2)	21 (15.5)	12 (14.6)	5 (3.7)	20 (12.8)	12 (13.8)	2 (2.1)	133 (12.0)
응답자		155	130	136	136	82	136	156	87	94	1112

①반드시 받고싶다 ② 대체로 받고 싶다 ③ 대체로 받고 싶지 않다 ④전혀 받고 싶지 않다

〈표Ⅳ-21-2〉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 요구 영역

명(%)

구분	문항 번호	소학교			중학교			고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성 문 제	①	34 (21.9)	40 (30.8)	38 (27.9)	23 (16.9)	23 (28.0)	55 (40.4)	26 (16.7)	17 (19.5)	16 (17.0)	272 (24.5)
	②	34 (21.9)	25 (19.2)	53 (39.0)	36 (26.5)	22 (26.8)	52 (38.2)	46 (29.5)	20 (23.0)	56 (59.6)	344 (30.9)
	③	29 (18.7)	31 (23.8)	29 (21.3)	29 (21.3)	19 (23.2)	19 (14.0)	47 (30.1)	34 (39.1)	14 (14.9)	251 (22.6)
	④	58 (37.5)	34 (26.2)	16 (11.8)	48 (35.3)	18 (22.0)	10 (7.4)	37 (23.7)	16 (18.4)	8 (8.5)	245 (22.0)
심리 문 제	①	61 (39.4)	57 (43.8)	61 (44.9)	48 (35.3)	34 (41.5)	90 (66.2)	59 (57.8)	21 (24.1)	35 (37.2)	466 (41.9)
	②	43 (27.7)	30 (23.1)	50 (36.8)	45 (33.1)	22 (26.8)	33 (24.30)	56 (35.9)	33 (38.0)	44 (46.8)	356 (32.0)
	③	25 (16.1)	23 (17.7)	19 (14.0)	25 (18.4)	12 (14.6)	8 (5.9)	20 (12.8)	21 (24.1)	13 (13.8)	166 (14.9)
	④	26 (16.8)	20 (15.4)	6 (4.3)	18 (13.2)	14 (17.1)	5 (3.7)	21 (13.5)	12 (13.8)	2 (2.2)	124 (11.2)
신체 문 제	①	61 (39.4)	51 (39.2)	37 (27.2)	37 (27.2)	28 (34.1)	40 (29.4)	43 (27.6)	27 (31.0)	21 (22.3)	345 (31.0)
	②	37 (23.9)	28 (21.5)	64 (47.1)	42 (30.90)	31 (37.8)	60 (44.1)	55 (35.3)	27 (31.0)	42 (44.7)	386 (34.7)
	③	23 (14.8)	23 (17.7)	27 (19.9)	30 (22.1)	13 (15.9)	27 (19.9)	32 (20.5)	21 (24.2)	20 (21.3)	216 (19.4)
	④	34 (21.9)	28 (21.6)	8 (5.8)	27 (19.8)	10 (12.2)	9 (6.6)	26 (16.6)	12 (13.8)	11 (11.7)	165 (14.9)
경제 문 제	①	41 (26.5)	32 (24.6)	31 (22.8)	27 (19.9)	20 (24.4)	40 (29.4)	26 (16.7)	22 (25.3)	20 (21.3)	259 (23.3)
	②	39 (25.2)	30 (23.0)	68 (50.0)	37 (27.1)	20 (24.4)	55 (40.4)	44 (28.2)	31 (35.6)	42 (44.7)	366 (32.9)
	③	27 (17.3)	34 (26.2)	22 (16.2)	36 (26.5)	15 (18.3)	28 (20.6)	41 (26.3)	16 (18.4)	21 (22.3)	240 (21.6)
	④	48 (31.0)	34 (26.2)	15 (11.0)	36 (26.5)	27 (32.9)	13 (9.6)	45 (28.8)	18 (20.7)	11 (11.7)	247 (22.2)
응답자	155	130	136	136	82	136	156	87	94	1112	

① 반드시 받고 싶다 ② 대체로 받고 싶다 ③ 대체로 받고 싶지 않다 ④ 전혀 받고 싶지 않다

<표Ⅳ-21-3> 학교 급별, 대상별로 본 상담 요구 영역

명(%)

구분	문항 번호	소 학교			중 학교			고 중			계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학생	부모	교사	
가정 문제	①	50 (32.3)	37 (28.5)	56 (41.2)	37 (21.3)	21 (25.6)	52 (38.2)	27 (17.3)	10 (11.5)	24 (25.5)	314 (28.2)
	②	33 (21.3)	26 (20.0)	52 (38.2)	32 (23.5)	27 (32.9)	60 (44.2)	48 (30.8)	21 (24.1)	38 (40.4)	337 (30.3)
	③	30 (19.4)	33 (25.4)	16 (11.8)	29 (21.3)	12 (14.6)	12 (8.8)	34 (21.8)	28 (32.2)	28 (29.8)	222 (20.2)
	④	42 (27.0)	34 (26.1)	12 (8.8)	38 (27.9)	22 (26.9)	12 (8.8)	47 (30.1)	28 (32.2)	4 (4.3)	239 (21.5)
기타 문제	①	32 (20.6)	32 (24.6)	29 (21.3)	32 (23.6)	23 (28.0)	32 (23.5)	17 (17.3)	7 (8.0)	2 (2.1)	216 (19.4)
	②	36 (23.2)	25 (19.4)	52 (38.2)	38 (27.9)	28 (34.1)	49 (36.0)	52 (33.3)	12 (13.8)	30 (31.9)	322 (29.0)
	③	35 (22.6)	45 (34.6)	28 (20.6)	24 (17.6)	12 (14.6)	25 (18.4)	38 (24.4)	18 (20.7)	22 (23.4)	247 (22.2)
	④	52 (33.6)	28 (21.6)	27 (19.9)	42 (30.9)	19 (23.3)	30 (22.0)	39 (25.0)	50 (57.5)	40 (42.6)	327 (29.4)
응답자		155	130	136	136	82	136	156	87	94	1112

- ① 반드시 상담 받고 싶다                      ② 대체로 상담 받고 싶다  
 ③ 대체로 상담 받고 싶지 않다              ④ 전혀 상담 받고 싶지 않다

아래에 제시된 <표Ⅳ-22>는 <표Ⅳ-21>(1.2.3)에서 학교 급별, 대상자별로 본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에 대한 매 문항에서 <반드시 상담 받고 싶다>에 응답한 수를 학교 급별, 대상별로 재 종합하여, 평균(%)로 가장 원하는 상담 영역의 우선 순위를 알아 본 것이다.

표에서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통으로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은 학습문제(67.4%), 성격문제(42.2%), 심리문제(41.9%), 친구문제(37.2%), 자아 통제문제(35.6%) 순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다시 대상으로 살펴보면 학습문제에서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은 교사가 77.7%로 우선 순위이고, 다음은 학부모



가 69.6%, 학생이 56.1%순으로 표현되었고 , 다음은 성격문제로 교사는 47.5%, 학생은 38.4%, 부모는 37.8%로, 심리문제에서 교사(49.4%), 학생 (44.2%), 부모(36.5%) 순으로, 친구문제에서 교사가 43.1%, 학부모가 36.1%, 학생은 32.7%로 응답되었다.

〈표Ⅳ-22〉학교 급별, 대상별 가장 원하는 상담 영역 비교

%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계
	소학	중학	고중	평균	소학	중학	고중	평균	소학	중학	고중	평균	
학습문제	59.4	55.9	53.2	56.1	70.8	75.6	62.1	69.5	93.4	77.9	61.8	77.7	67.4
친구문제	38.7	28.7	30.8	32.7	38.5	35.4	34.5	36.1	31.6	55.1	42.6	43.1	37.2.
성격문제	47.1	30.9	37.2	38.4	52.3	43.9	17.2	37.8	41.9	60.3	40.4	47.5	42.2
자아문제	29.7	30.1	30.2	30.0	39.2	37.9	23.0	33.4	46.3	44.9	38.3	43.2	35.6
성 문제	21.9	16.9	16.7	18.5	30.8	28.0	19.5	26.1	27.9	40.4	17.0	28.4	24.5
심리문제	39.4	35.3	57.8	44.2	43.8	41.5	24.1	36.5	44.9	66.2	37.2	49.4	41.9
신체문제	39.4	27.2	27.6	31.4	39.2	34.1	31.0	34.8	27.2	29.4	22.3	26.3	31.0
경제문제	26.5	19.9	16.7	21.0	24.6	24.4	25.3	16.6	22.8	29.4	21.3	24.5	23.3
가정문제	32.3	21.3	17.3	23.6	28.5	25.6	11.5	21.9	41.2	38.2	25.5	34.9	28.2
기 타	20.6	23.6	17.3	20.5	24.6	28.0	8.0	20.3	21.3	23.5	2.1	15.6	19.4
응답자	155	130	136	447	136	82	136	299	156	87	94	366	1112

학교 급별로 대상들의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들인 경우 학습문제가 56.1%로 가장 높게, 다음으로는 심리문제가 44.2% , 그 다음은 성격문제가 38.4%, 친구문제는 32.7%, 신체문제는 31.4%, 자아 통 제면에서는 30.0%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을 다시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심리문제에서 고중생들이 소학교 (39.4%), 중학교(35.2%)학생들에 비해 높은 57.8%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자녀교양을 위한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학습문제가 6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격문제(37.8%), 심리문제(36.5%), 친구문제(36.1%), 신체문제(34.8%), 자아통제(33.4%)순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학교 급별로 학부모들의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격문제에서 소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들이(52.3%, 43.9%)로 고중(17.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심리문제에서 고중 학부모들이 57.8%의 높은 수치를 보여 소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들(39.4%, 35.3%)에 비해 상담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인 경우 학생교육을 위해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학습문제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심리문제(49.4%), 성격문제(47.5%), 자아통제문제(43.2%), 친구문제(43.1%)순으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교사인 경우 소학교 교사가 학습문제에 대해 93.4%로 특별히 높은 응답을 보였고 중학교 교사인 경우는 학생들의 심리문제가 66.2%, 성격문제는 60.3%, 친구문제가 55.1%, 성 문제가 40.4%로 소학교나 고중 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것을 개괄하여 보면 교사와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학습문제67.4%, 성격문제 42.2%, 심리문제 41.9%, 친구문제 37.2%, 자아통제문제 35.6%)와 일치됨을 알 수 있으며 매 영역에서 학생자신보다도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고민거리로 하여 상담요구가 더욱 절박함을 보아낼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 및 그 실태를 알아보고 그 고민과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및 상담요구를 확인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상담의 방향과 과제들을 제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은 무엇인가?

둘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상담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상담영역은 무엇인가?

넷째,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상담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소재하는 4개현시의 소학교, 중학교, 고중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447명), 학부모(299명), 교사(366명)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영역으로는 청소년의 거주형태, 여가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건강문제, 고민내용, 고민에 대한 대처방식, 상담실 이용여부, 원하는 상담영역 등이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한국 청소년 대화의 광장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연구에 쓰인 설문지, 한국 제주도 청소년들의 의식조사 설문지(허철수, 고기홍 외, 1997)와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의 상담실태와 과제과약을 위한 설문지 내용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 제작하였고 기존 조사에 비해 조사 영역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SPSS/PC+를 이용한 통계처리분석을 통해 빈도별 분석을 하였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요구에 대해서는 백분율

(%)을 통해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주요 상담요구영역에 대해서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집단간의 평균(%)을 통해 상담요구영역의 우선 순위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거주형태 및 그 원인

조사대상자 447명(청소년)중의 205명(45.9%)이 양부모와 함께 있으며 나머지는 한쪽 부모거나 조부모, 친척, 기숙사, 또는 자취하고 있다.

양부모와 함께 못 있는 원인으로는 242명(51.5%)의 부모 중 외국에 돈벌이를 나간 부모가 65.7%, 부모이혼이 15.7%, 사망이 10.3%이고 국내 다른 곳으로 돈벌이 간 경우가 8.3%로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결손 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다.



### 2) 여가생활

방과 후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 응답자 중 59.5%가 학원이나 집에서 공부한다고 했고, 10.9%가 거리에서나 친구 집에서 논다고 했으며, 10.7%가 TV, 비디오를 시청한다고 했다. 학원이나 집에서 공부한다는 59.5%와는 너무 큰 차이로 운동을 한다는 학생은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공부만 중시하고 기타 교육이 홀시됨을 알 수 있다.

### 3) 마음상태

학생의 마음상태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 36.2%가 그저 그렇다고 했고, 28.2%가 아주 좋다, 19.7%는 항상 쾌활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였으며, 12.1%가 아주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3.8%의 학생이 모든 것이 귀찮고 죽고 싶다고 하여 청소년고민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 4) 가정생활 행복도

학생이 느끼는 가정생활 행복 도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었는데 응답자 746명 중 51.7%가 매우 행복하다고, 40.1%가 대체로 행복하다고 하였으며, 5.5%가 대체로 불행하다로, 2.7%가 매우 불행하다로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가정생활 행복 도는 학교 급별에 따라 일치하게 나타났다.

#### 5)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가하는 질문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 반수에 달하는 51.8%가 대체로 만족으로 응답했고, 아주 만족이 27.0%, 약간불만족, 아주 불만족을 합치면 20.8%이다.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하여 학교생활에 대하여 대체로는 만족해 하지만 불만족의 비중도 적지 않다.

#### 6)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유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 있다에 소학생 59.4%, 중학생 58.8%, 고중생 60.9%로 반응되었고 없다에 소학생 17.4%, 중학생 11.8%, 고중생 13.8%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유무에 대한 응답을 보면 한두 명 있다는 응답이 우선 순위였고, 없다는 응답은 소학교 13.1%,중학교 15.9%, 고중 13.8%이다. 이로부터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은 친구를 폭 넓게 보다는 깊이 있게 사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친구가 없다는 비중도 적지 않음을 보아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7) 친구관계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서 53.9%가 잘 지낸다, 34.6%는 아주 잘 지낸다고, 7.1%가 잘 지내지 못한다고 반응했으며,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는 4.4%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일치하였다.

## 8) 고민 처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처리에 대한 응답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요구했다. 전체 응답자 1112명중에서 41.4%가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고, 25.7%는 혼자서 고민한다고, 24.3%가 의논할 적당한 상대가 없다고, 8.6%는 잘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적당한 상대가 없다고나 잘 모르겠다고는 모두 58.6%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 9) 고민해소 도움

청소년들이 고민해소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63.2%, 부모가 18.2%, 교사는 8.1%로 밖에 응답되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고민해소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 친구가 가장 많고 다음은 부모이다. 학생들의 해답을 보면 중학생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고민해소를 위해 도움요청의 대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학생들의 고민해소는 반수 이상이 직접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전화나 편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 도움을 바라는 목적과 결과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의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1%가 이해나 위로를, 22.0%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3%는 고민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원할 때 가장 많게는 이해나 위로를 바라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려는 것이고 고민을 호소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고민 해소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70%정도는 많게 적게 도움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거의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저 그렇다거나 더 나빠졌다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 상담에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필요됨을 시사한다.

### 11) 고민문제의 정도, 고민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33.5%가 그저 그렇다  
로, 28.8%는 다소 많다고, 24.4% 거의 없다고 반응했고, 6.4%가 아주 많다고  
반응했다. 청소년의 고민 문제의 정도를 요약해 보면 33.2%가 고민이 다소  
많거나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 응답에서 중학생이 소학생에 비  
해 고민 문제가 많다고 응답했고 고중생이 중학생에 비해 고민문제가 훨씬  
많다고 응답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보다 고민문제가 다소 많다고 반  
응했다.

### 12) 청소년들의 고민문제의 구체적인 영역

청소년들의 고민문제의 구체적인 영역을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의 응답으  
로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학습문제에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중 집중력 부족이 51%, 성적저하가  
38.3%, 시험불안이 4.25%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경우는 집중력 부족, 시험불  
안, 성적저하 순으로 응답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시각도 학습문제에서의 고  
민이 우선 순위였다.

친구문제에서 청소년은 전체응답자의 21.9%는 친구와의 갈등을 느낀다고  
호소했고, 20.4%가 친구가 너무 많다고, 11.4%는 이성친구가 없어 고민이라  
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시각은 친구와의 갈등, 이성친구가 없음, 너무 많은  
친구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교사들은 친구와의 갈등을 우선 순  
위로 보았고 이성 친구가 없어서, 너무 많은 친구가 학생들의 고민거리로 된  
다고 응답했다.

성격문제에서 청소년은 전체응답자의 35.3%가 내성적인 성격, 19.5%가 과  
격하고 급한 성격, 15.0%가 충동적 성격 때문에 고민이라고 응답했고, 학부  
모는 내성적인 성격, 과격하고 급한, 충동적인 성격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  
았으며, 교사들은 과격하고 급한 성격, 충동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 큰  
고민거리로 된다고 보았다.

자아통제 면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음주, 잦은 싸움, 폭력행위, 인터넷 중

독증 순으로 나타나 흡연이나 음주, 인터넷 중독 증세가 청소년들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성 문제에서 소학생과 고중생은 이성교제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지만, 중학생은 연애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

심리문제에서 39.9%가 우울증으로, 33.3%가 신경증으로, 32.2%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2.9%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의 심리문제의 엄중성을 보아낼 수 있다.

신체문제에서 청소년 전체 응답자의 51.9%가 신체 허약, 15.8%는 발육부족, 14.5%가 신체장애로 반응하였다. 신체 허약에 대한 것이 첫 순위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신체로 인한 고민이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학부모는 소학교, 중학교, 고중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자녀들의 신체 허약(23.4%)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나타냈고, 학교 급별로 살펴보아도 신체문제에서는 신체 허약이 가장 우선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48.1%가 경제 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39.1%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가정문제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27.1%가 부모의 과잉기대로 고민하고, 24.2%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민한다고 반응했으며, 13.2%는 부모와의 갈등을 호소했다. 학부모들도 공통으로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21.1%로 고민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과잉기대도 고민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아도 부모의 과잉기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준 것으로서 부모들의 과잉기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기타 문제에서 청소년 응답자 중 연예인에 대한 관심, 교사와의 갈등, 교사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반응은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반응과 공통하게 연예인에 대한 관심, 교사와의 갈등, 교사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본 학생들과 교사와의 갈등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시각에 비해 높은 수치(25.1%)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이 해결을 가



져와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을 시사한다.

이상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의 응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고민을 아래의 몇 가지 면으로 집중시켜 볼 수 있다. 학습문제에서 집중력 부족, 시험불안 등이 주요문제로 입증되고, 성격문제에서는 내성적인 성격, 자아통제에서는 흡연, 음주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성 문제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성교제로 볼 수 있다. 심리문제에서는 신경증을 호소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났고, 신체문제에서는 신체 허약, 경제문제에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정문제에서는 부모의 과잉기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큰 고민거리로, 기타문제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갈등이 부모와의 갈등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 13) 상담실 이용여부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9.7%이다. 전체 응답자의 37.6%이 적극적으로 이용, 42.0%이 때때로 이용하겠다고 반응했다. 이로부터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나 교사들의 상담에 대한 요구는 아주 절박함을 알 수 있다.

### 14)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

학교 급별, 대상자별로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에 대하여 매 문항에서 <반드시 상담 받고 싶다>에 응답한 수를 학교 급별, 대상별로 재 종합하였다.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통으로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은 학습문제 67.4%, 성격문제 42.2%, 심리문제 41.9%, 친구문제 37.2%, 자아통제문제 35.6%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응답으로부터 학습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관심 영역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며 성격문제, 심리문제로 인한 상담요구도 절박함을 알 수 있다.

## 2. 결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방과 후 하는 일은 학원에 간다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넘고,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도 많아 여가를 효과적으로 선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마음상태, 가정생활에 관련하여.

마음상태가 좋다는 학생보다 나쁘다거나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더 많다.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답답하고 허무한 마음의 상태는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청소년들이 자기 가정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셋째, 학교생활에 관련하여

학교가 청소년에게 흥미롭고 의욕적인 학습의 장으로 그들을 수용하기에 적절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으로 하여 학교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중한 시험압력이 학교생활이 불만족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친구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나 상당부류가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와의 갈등 시 참거나 외면해 버리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갈등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친구가 없다는 비중도 적지 않음을 보아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고민문제에 관련하여

청소년의 다수가 고민이 아주 많거나 다소 많으며, 전혀 없다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 교사들의 시각은 청소년들의 고민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고, 학부모들도 청소년들 자신들이 느끼는 것보다 자녀들의 고민문제가 훨씬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 고민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풍토에서 학업으로 인한 것이다. 심리문제에서 우울증이나 신경증으로 고민을 호소하는 학생이 예상보다 많다.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사 폭력으로 하여 고민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 여섯째, 고민처리와 관련하여

고민문제 해결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친구이고 교사는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의 상대가 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원할 때 가장 많게는 이해나 위로를 바라고, 고민을 호소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단연 친구를 가장 우선으로 꼽아 친구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우미로 된다.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반수 이상이 직접 만나서 하고 나머지는 전화나 편지로 한다. 상당부류의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고민하거나 고민을 호소할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 일곱째, 상담실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의 상담실 이용 의도는 매우 높게 반응되었고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밝힌 것으로 보아 상담요구가 그 만큼 절박함을 알 수 있다.

#### 여덟째, 원하는 상담영역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요구하는 상담영역은 학습문제가 우선이고 다음으로 심리문제·성격문제·친구문제가 절박하다.

학부모들이 자녀교양을 위한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도 학습문제, 성격문제와 심리문제이다.

교사들도 학습문제에 대해 특별히 높은 요구를 보였고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문제를 상담의 우선 요구로 하였다.

개괄적으로 청소년, 교사,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학습문제와 심리문제, 성격문제로 일치하다. 매 영역에서 학생 자신보다도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고민거리로 하여 상담요구가 더욱 절박하여 청소년 고민의 정도와 상담의 필요성을 더욱 시사한다.



## VI. 연변 청소년상담의 방향과 과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민과 비행문제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그들의 도덕성이나 품성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장애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불량한 심리의 외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에 대하여 주목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더 주목하여 그런 것들을 제때에 해소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연변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문제를 야기하는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지나친 점수 추구로 학생들의 정신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혼을 상승과 부모출국가정의 증가,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부재 등 수많은 외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해결해야 될 심리·사회적 과제도 많다.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과중한 학습부담도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을 겪게 하는 주요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불량한 사회 환경도 많은 청소년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많은 청소년들이 불량한 외래문화를 접하면서 받는 성적 충동은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청소년들을 성범죄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효과적인 심리건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상담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본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연변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을 조력하기 위한 상담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 상담은 수선 학업성적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조사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학습문제에서의 집중력 부족, 성적저하, 시험압력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들의 과잉기대도 고민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가장 원하는 상담영역도 역시 학습문제였고 학부모가 원하는 상담영역도 자녀의 학습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대학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척도인 학업성적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성공과 실패뿐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 자체를 결정하는 척도가 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적이 좋지 않은 많은 학생들은 스스로 느끼는 학업부진과 빈번한 시험압력으로 하여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결국 학교중퇴, 가출이나 자살 등의 행동을 하게 되어 사회문제를 낳게 된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들이 과분한 학습 부담에서 해탈될 수 있는 다양한 심리건강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토로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고민해소에서 친구가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응답되었으며 학교 급별이 높을수록 친구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또래 상담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연령, 심리특징에 맞는 다양한 또래상담활동이 전개되어 그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채 정화되지 못한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놓는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취미와 추구를 유발시키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대중매체로 인한 문화시장의 혼란, 색정, 살인, 절도 등을 반영한 비디오 등은 아직 세계관이 채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

들의 심령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특히 심리적 환경으로 될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개방된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아 인터넷 중독증에 빠져들기가 일쑤이다.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에서는 불량한 매체들이 청소년들의 심신을 해칠 수 있는 활동장소가 법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교사를 중심으로 전문상담자격을 갖춘 심리건강교육 골간 교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처리에 대한 질문에서 고민이 있어도 혼자서 고민한다거나 적당한 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고민호소의 대상이 교사라는 청소년은 8.1%에 머물고 교사와의 갈등이 고민으로 된다는 응답이 25.1%이다. 교육자로서의 교사가 청소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문상담자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교사들도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상담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식과 기술의 총화이다. 때문에 일정한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만 상담에 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변에서는 필요한 시설에 상담관련학과를 개설토록 하여 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학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심리건강교육을 담당하는 골간 교사들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상담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교육 차원에서 상담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단기 상담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의 어려움,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고민거리라고 호소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로서 정확한 성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많은 청소년들이 불량한 외래문화를 접하면서 받는 성

적 충동은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게 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을 성범죄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에 이성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바르고 건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연령단계에 따르는 적절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결혼가족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전문시설이 필요하며 편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연구와 지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설문조사에 참가한 447명 청소년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45.9%가 양부모와 함께 있고 나머지 54.1%가 한쪽 부모거나 조부모, 친척, 자취,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부류의 학생들 중 부모부재로 거처가 온정 되지 못한 학생들이 많으며 또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심리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많다. 이들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의 온정을 찾지 못하며 강렬한 자비심리가 생기기도 한다. 매사에 불만이 있고 부모에게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이성에게서 받을 것을 갈구하여 조기연애에 빠져드는 학생도 많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교육 인적자원이 허락하는 전제에서 사랑의 집 같은 전문시설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문상담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의 과잉 기대는 청소년의 고민을 야기하는 반면 청소년들의 고민해결 대상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들은 권위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자녀들의 존재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기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자질을 높여야 하는 것도 급선무의 하나이다. 이에 학부모교육이 더 신속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진정한 부모역할 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확대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회에 전문상담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상담실이 각 현시 학교에 개설·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상담기관이나 상담실의 이용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회, 학교, 가정이 상호 배합되어 심리건강교육, 성교육, 심리훈련, 심리보도, 심리자문, 심리진단



등 종합성 교육활동이 잘 진행되어야 하며,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들에게 개방적이고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곳,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그들의 심리고민을 제때에 해소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위기극복능력과 고민거리에 대한 건설적 대응능력은 연습과 훈련으로 가르쳐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회, 학교, 가정이 합심하여 청소년들의 자기 성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개발되고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혼자서 겪는 고민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고민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맞붙어 겨룰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동목(1999). 21세기 중국 학교교육의 전망과 과제. 21세기 학교 교육의  
전망과 과제 한·중·일 학술세미나 자료.
- 고기홍 외(1997). 청소년 의식조사연구. 제주도 청소년 연구. 제1집.
- 구본용 외(1993). 청소년 문제와 상담실태분석.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구본용 외(1993).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계현 외(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지사.
- 김주연(1996).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계선자 외(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 나승규(2002).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제주 청소년연구  
2002년 제6집.
- 마종범(2002). 중국 대학상담 발전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문용린(1993). 학생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청소년들이 고민하  
고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 학술세미나자료.
- 박옥희(2000). 중국연변지역 청소년문제의 특징 및 주요원인. 한·중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지도 학술세미나 자료.
- 박태수(2000).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기법. 중국 연변 조선족청소년  
지도자 연수 자료.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원식 외(1985). 청소년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 청소년연구원(1991). 한국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 연구원.
- 허철수(2000).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지도 대책.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지도자 연수자료.

- 허철수(2000).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징과 상담의 과제. 한국청소년 연구. 제13권 2호.
- 홍강의(1992). 청소년의 문제장애: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황응연(1993). 청소년상담의 성격과 학문적 과제. 청소년 상담연구.
- 황정규(1990). 한국 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대 사대농촌.
- 錢銘怡(1994). 心理자문과 心理치료. 北京大心理學叢書.
- 賀淑曼, 외(1999) 健康心理 와 人才發展. 21世紀人才心理素質教育叢書.
- 朴玉姬, 외(2001) 中小學生心理健康教育探析. 훈춘시 心理健康教育實驗總結.
- Booth, C. M.(1998). The development of affect. In L. T. Flaherty, & R. Sarles(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3. New York : Jong Wiley & Sons, Inc.
- Conger, J., & Petersen, A.(1984). *Adolescence and Youth :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Changing World*. NewYork :Harpper and Row.
- Schave, D., & Schave, B.(1989). *Early adolescence and the Search for Self*. New York : praeger.
- Pietrofesa, J, J., Hoffman, A., & Splete, H. H.(1984). *Counseling: Anintroduction*. Boston :Houghton Mifflin.

<Abstract>

## **Analysis of a Psychological Trouble and Counseling Needs for Adolescents in China Yanbian**

**Piao Yu Ji**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a psychological trouble and counseling needs for adolescents and suggest a counseling directions and task in China Yanbian.

Adolescent's consciousness survey and a counseling fact-finding survey were administered 447 adolescent, 299 parent of student, and 366 teacher, to be examined by the method of frequency analysis(%).

A result of research showed that a psychological trouble for adolescent were higher in the following order ; a high school student, a middle school student, an elementary student. Parent of student and teacher recognized serious a psychological problem of adolescents.

A psychological trouble of adolescents in Yanbian are as follows ; for a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learning problem for concentration deficit, for a personality problem an

introspective personality and an impulse personality, for a ego problem smoking and drinking, for a internet problem internet addiction, for a sex problem the opposite sex relation and concern too severely for a sex, for a psychological problem depression and neurosis, for family problem overexpectation of a parent and sweetness for a parent, and for the other problem conflict in a relation to teacher, teacher's violence.

A counseling needs of adolescents in Yanbian were higher in the following order ; a learning problem, a personality problem, a psychological problem, a friend problem, a ego problem, a body problem.

On the basis of a result, a counseling direction and task for adolescents in Yanbian suggested as follows ; a psychological health education in a school, appearance one after another of a professional counselor, parent education, a variety of activity for adolescent to protect a contaminated environment, an actual sex education on the basis of age stag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 부 록

중국 연변 청소년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1> 설문지 (청소년 용)

<부록 2> 설문지 (학부모 용)

<부록 3> 설문지 (교사 용)

<부록 1> 설문지 (청소년 용)

중국 연변 청소년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요구 파악을 위한 청소년 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이란 심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전문인원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기성장력을 높여주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주며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예방해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고민거리로 하여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맞고 틀린 답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아진 자료는 전체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이 대답한 모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항에 대하여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1월

한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박 옥 희

☞ 다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0 표를 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교    ①소학교    ②중학교    ③고중
3. 학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5학년    ⑤6학년

4.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 ① 아버지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기타 (조부모, 또는 친척, 자취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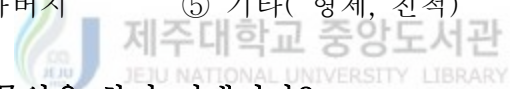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만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이혼                                      ② 외국으로 돈벌이 나감  
③ 국내 다른 곳에 돈벌이 나감    ④ 사망

☞ 아래의 물음들에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그 번호에 0표를 해 주세요.

6. 방과 후 주로 누구와 지냈을까?

- ① 부모    ② 친구                      ③ 혼자  
④ 할머니, 할아버지              ⑤ 기타( 형제, 친척)



7. 방과 후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 ①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공부한다  
② 거리에서나 집, 또는 친구 집에서 그냥 논다  
③ 전자 유희나 컴퓨터를 논다  
④ TV, 비디오를 본다  
⑤ 운동을 한다  
⑥ 집안 일을 돕는다

8. 요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 ① 항상 쾌활하고 기분이 좋다              ②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주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⑤ 모든 것이 귀찮고 죽고 싶다

9.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대체로 행복하다  
③ 대체로 불행하다    ④ 매우 불행하다



10. 학교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아주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아주 불만족

11.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한 두명 있다    ③ 여러 명 있다

12.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 ① 아주 잘 지낸다    ② 대체로 잘 지낸다  
③ 잘 지내지 못한다    ④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

13. 친구와 갈등을 느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합니까?

- ① 그냥 참고 외면한다    ② 위협하거나 싸운다  
③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④ 편지나 전화로 해결한다

14. 학생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을 처리합니까?

- ① 혼자서 고민한다  
②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  
③ 의논하고 싶으나 적당한 상대가 없어 혼자 애쓰는 편이다

15.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 ① 교사    ② 부모    ③ 친구    ④ 선배    ⑤ 친척

16.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까?

- ① 전화로    ② 편지로    ③ 직접 만나서

17. 누군가를 찾아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까?

- ① 고민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② 이해나 위로를 받고자 했다  
③ 직접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자 했다  
④ 구체적인 정보를 섭취하려 했다  
⑤ 문제에 대해 이해하려 했다  
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했다

18. 도움을 요청했을 때 원하는 성과가 있었나요?

- ① 큰 도움을 받았다                      ② 다소 도움을 받았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을 받지 못했다
- ⑤ 더 어려워 졌다

19.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고민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다    ② 다소 많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 다음의 질문을 읽고 매 유형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면 모두 0표를 해 주세요.

20. 주로 어떤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 |          |                |          |              |
|----------|----------------|----------|--------------|
| (1) 학습문제 | ① 집중력 부족       | (2) 친구문제 | ① 친구와의 갈등    |
|          | ② 성적 저하        |          | ② 너무 많은 친구   |
|          | ③ 시험 압력        |          | ③ 이성 친구가 없음  |
| (3) 성격문제 | ① 내성적인 성격      | (4) 자아통제 | ① 잦은 싸움      |
|          | ② 과격, 급한 성격    |          | ② 폭력 행위      |
|          | ③ 충동적인 성격      |          | ③ 인터넷 중독증    |
|          |                |          | ④ 흡연, 음주     |
| (5) 성문제  | ①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 (6) 심리문제 | ① 신경증        |
|          | ② 이성교제         |          | ② 우울증        |
|          | ③ 연애           |          | ③ 외모에 대한 열등감 |
|          |                |          | ④ 자살에 대한 생각  |
| (7) 신체문제 | ① 신체발육의 부족     | (8) 경제문제 | ① 가정경제의 어려움  |
|          | ② 신체장애         |          | ② 용돈의 부족     |
|          | ③ 신체허약         |          | ③ 학비, 잡비등    |
| (9) 가정문제 | ① 부모와의 갈등      | (10) 기타  | ① 교사와의 갈등    |
|          | ② 부모에 대한 그리움   |          | ② 교사폭력       |
|          | ③ 부모의 과잉기대     |          | ③ 연예인에 대한 관심 |

☞ 다음의 질문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0표를 해 주세요.

2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이 있다면 이용할 의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2. 학교에 상담실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② 때때로 이용하겠다  
 ③ 거의 이용하지 않겠다      ④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

23.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 받고 싶습니까? ( 해당되는 곳에 0표를 해 주세요)

구 분	① 반드시 상담 받고 싶다	② 대체로 상담 받고 싶다	③ 대체로 상담 받고 싶지 않다	④ 전혀 상담 받고 싶지 않다
학습문제				
친구문제				
성격문제				
자아통제				
성 문제				
심리문제				
신체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기 타				

-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 2〉 설문지 (학부모 용)

중국 연변 청소년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요구 파악을 위한 학부모 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이란 심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전문인원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자기성장력을 높여주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주며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예방해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고민을 풀어주기 어떤 방향의 상담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맞고 틀린 답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아진 자료는 전체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이 대답한 모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항에 대하여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고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1월

한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 옥 희

☞ 다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0 표를 해주세요.

1. 학생의 성별      ① 남              ② 여
2. 학생의 학교      ①소학교      ②중학교      ③고중
3. 학생의 학년      ①1학년      ②2학년③3학년      ④학년 ⑤6학년

4. 학생과의 관계

- ① 아버지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어머니
- ④ 기타 (조부모, 또는 친척, 자취 등)

☞ 아래의 물음들에서 자기 집 학생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그 번호에 0표를 해 주세요.

5. 학생의 가정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대체로 행복하다
- ③ 대체로 불행하다    ④ 매우 불행하다

6. 학생에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한 두명 있다    ③ 여러 명 있다

7. 학생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 ① 아주 잘 지낸다    ② 대체로 잘 지낸다
- ③ 잘 지내지 못한다    ④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

8. 친구와 갈등을 느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합니까?

- ① 그냥 참고 외면한다
- ② 위협하거나 싸운다
- ③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 ④ 편지나 전화로 해결한다

9. 학생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을 처리합니까?

- ① 혼자서 고민한다
- ②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
- ③ 의논하고 싶으나 적당한 상대가 없어 혼자 애쓰는 편이다

10. 학생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 ①교사      ② 부모 ③ 친구 ④ 선배 ⑤ 친척

11. 학생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까?

- ①전화로      ② 편지로      ③ 직접 만나서

12. 학생이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 ① 고민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② 이해나 위로를 받고자 했다  
③ 직접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자 했다  
④ 구체적인 정보를 섭취하려 했다  
⑤ 문제에 대해 이해하려 했다  
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했다

13.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원하는 성과가 있었나요?

- ① 큰 도움을 받았다  
②다소 도움을 받았다  
③그저 그렇다  
④ 도움을 받지 못했다  
⑤ 더 어려워 졌다

14. 학생에게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고민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다      ②다소 많다  
③그저 그렇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 다음의 질문을 읽고 매 유형에서 집 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이면 모두 0 표를 해주세요.

15. 학생은 주로 어떤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 |          |               |          |             |
|----------|---------------|----------|-------------|
| (1) 학습문제 | ①집중력부족        | (2) 친구문제 | ①친구와의 갈등    |
|          | ②성적 저하        |          | ②너무 많은 친구   |
|          | ③시험 압력        |          | ③이성 친구가 없음  |
| (3) 성격문제 | ①내성적인 성격      | (4) 자아통제 | ①잡은 싸움      |
|          | ②과격, 급한 성격    |          | ②폭력 행위      |
|          | ③충동적인 성격      |          | ③인터넷 중독증    |
|          |               |          | ④흡연, 음주     |
| (5) 성문제  | ①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 (6) 심리문제 | ①신경증        |
|          | ②이성교제         |          | ②우울증        |
|          | ③연애           |          | ③외모에 대한 열등감 |
|          |               |          | ④자살에 대한 생각  |
| (7) 신체문제 | ①신체발육의 부족     | (8) 경제문제 | ①가정경제의 어려움  |
|          | ②신체장애         |          | ②용돈의 부족     |
|          | ③신체허약         |          | ③학비, 잡비 등   |
| (9) 가정문제 | ①부모와의 갈등      | (10) 기타  | ①교사와의 갈등    |
|          | ②부모에 대한 그리움   |          | ②교사폭력       |
|          | ③부모의 과잉기대     |          | ③연예인에 대한 관심 |

☞ 다음의 질문을 읽고 매 문항에서 하나만 골라 0표를 해주세요.

16. 당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 기관이 있다면 이용할 의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7. 당신은 학교에 상담실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② 때때로 이용하겠다  
 ③ 거의 이용하지 않겠다    ④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

18. 당신은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학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 받고 싶습니까? ( 해당되는 곳에 0표를 해 주세요)

구분	① 반드시 상담 받고 싶다	② 대체로 상담 받고 싶다	③ 대체로 상담 받고 싶지 않다	④ 전혀 상담 받고 싶지 않다
학습문제				
친구문제				
성격문제				
자아통제				
성 문제				
심리문제				
신체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기 타				

-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 3〉 설문지 (교사 용)

중국 연변 청소년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요구 파악을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데 조금이라도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고민과 그들의 상담에 대한 도움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신 중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본 연구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아진 자료는 전체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이 대답한 모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관찰하고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1월

한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 옥 희

☞ 다음의 문항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곳에 0표를 해 주세요.

1. 소속학교      ①소학교      ②중학교      ③고중  
2. 가르치는 학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학년      ⑤ 6학년

☞ 아래의 물음들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그 번호에 0표를 해주세요.

3.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아주 만족      ② 대체로 만족
- ③ 약간 불만족    ④ 아주 불만족

4.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을 처리합니까?

- ① 혼자서 고민한다
- ②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
- ③ 의논하고 싶으나 적당한 상대가 없어 혼자 애쓰는 편이다

5. 학생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 ① 교사      ② 부모      ③ 친구      ④ 선배      ⑤ 친척

6.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까?

- ① 전화로      ② 편지로      ③ 직접 만나서

7.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고민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 ② 이해나 위로를 받고자 했다
- ③ 직접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자 했다
- ④ 구체적인 정보를 섭취하려 했다
- ⑤ 문제에 대해 이해하려 했다
- 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했다

8. 학생들에게 자신들만이 간직하고 있는 고민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다    ② 다소 많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 다음의 질문을 읽고 매 유형에서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  
이면 모두 0표를 해 주세요.

9. 학생들은 주로 어떤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 |          |              |          |              |
|----------|--------------|----------|--------------|
| (1) 학습문제 | ① 집중력 부족     | (2) 친구문제 | ① 친구와의 갈등    |
|          | ② 성적 저하      |          | ② 너무 많은 친구   |
|          | ③ 시험 압력      |          | ③ 이성 친구가 없음  |
| (3) 성격문제 | ① 내성적인 성격    | (4) 자아통제 | ① 잦은 싸움      |
|          | ② 과격, 급한 성격  |          | ② 폭력 행위      |
|          | ③ 충동적인 성격    |          | ③ 인터넷 중독증    |
|          |              |          | ④ 흡연, 음주     |
| (7) 신체문제 | ① 신체발육의 부족   | (8) 경제문제 | ① 가정경제의 어려움  |
|          | ② 신체장애       |          | ② 용돈의 부족     |
|          | ③ 신체허약       |          | ③ 학비, 잡비     |
| (9) 가정문제 | ① 부모와의 갈등    | (10) 기타  | ① 교사와의 갈등    |
|          | ② 부모에 대한 그리움 |          | ② 교사폭력       |
|          | ③ 부모의 과잉기대   |          | ③ 연예인에 대한 관심 |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0표를 해 주세요.

10. 선생님께서는 전문상담기관이 있다면 이용할 의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 선생님은 학교에 상담실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② 때때로 이용하겠다  
③ 거의 이용하지 않겠다      ④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

12. 선생님은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학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 받고 싶습니까? ( 해당되는 곳에 0표를 해 주세요)

구 분	① 반드시 상담 받고 싶다	② 대체로 상담 받고 싶다	③ 대체로 상담 받고 싶지 않다	④ 전혀 상담 받고 싶지 않다
학습문제				
친구문제				
성격문제				
자아통제				
성 문제				
심리문제				
신체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기 타				

- 수고하셨습니다 -